

2024 벨라루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벨라루스의 브릭스 가입 동향 및 향후 전망	6
나.	벨라루스-주변국 간의 국경 갈등 심화	7
다.	벨라루스 하원 및 지방선거 실시	8
라.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외 경제협력 강화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2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22
나.	교역	23
다.	투자	3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9
가.	교역	39
나.	투자	44
다.	협력 유망 분야	50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53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54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55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6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63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64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5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벨라루스 '23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2.0% 기록,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전환으로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24년 역시 1.0% 이상의 성장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벨라루스 경제가 '23년 상반기 ICT·물류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계·건설·도소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
 - WB 등 국제기구들은 벨라루스 GDP 성장률을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확대로 '23년은 -1.0~0.7%로, '24년은 1.2~1.4%의 성장 예상
- 2023~2024년 벨라루스와 EU 인접국간의 긴장 고조와 함께 벨라루스의 군사·경제적 러시아 의존도 심화로 러시아-벨라루스의 경제통합 가속화 전망
 - 전술핵 배치, 연합 군사 훈련 등 공동 안보 대응과 더불어 벨라루스-러시아 대체산업육성 프로젝트 수행, EAEU 산업협력 강화, BRICS 가입 추진 계획

※ '22년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벨라루스는 미국/EU 등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공급망 혼란, 물류 제약 등을 겪으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23년 들어 러시아·중국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교역 다변화 추진, 대체산업 육성 등으로 점차 경제제재에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24년의 경우 주변국과의 국경 갈등 심화, 추가 경제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벨 정부는 러시아/EAEU를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 강화(브릭스 가입 추진 등)와 '24년 총선, '25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경제 안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가. 벨라루스의 브릭스(BRICS) 가입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 BRICS 가입을 통한 다자협력 및 영향력 확대 희망

-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축소된 공급망 및 대외 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BRICS 가입을 적극 추진 중
 - BRICS 회원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 투자, 교역,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검토
 - BRICS 신개발 은행 가입 및 활용 등으로 벨라루스의 기여도 제고
 - * 전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칼륨비료 및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

〈벨라루스의 BRICS 가입 추진 동향〉

'23.5월	루카셴코 대통령 명의 벨라루스의 정회원국 가입 지지 요청 서한 발송 * 8월 예정 BRICS 정상회담 개최 시 동 가입 문제 검토 희망
'23.7.25	벨 외교부, BRICS 정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언론 발표
'23.8.22~24	BRICS 연례회의의 참석 (알레이닉 외교장관이 벨 수석대표로 참석)
'23.8.24	정상회의의 결과 6개국(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이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
'23.8.27	벨 외교부, 벨라루스의 BRICS 가입이 차기 회의 개최 시 우선 검토될 예정임을 발표

자료: Belta(Belarusian Telegraph Agency), Mfa.gov.by(8.24)

- 연례회의에서 참여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경제 협력 확대 제안
 - 달러·유로 중심의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 교역시 자국 화폐 거래 확대
 - BRICS를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3각 협력 강화 검토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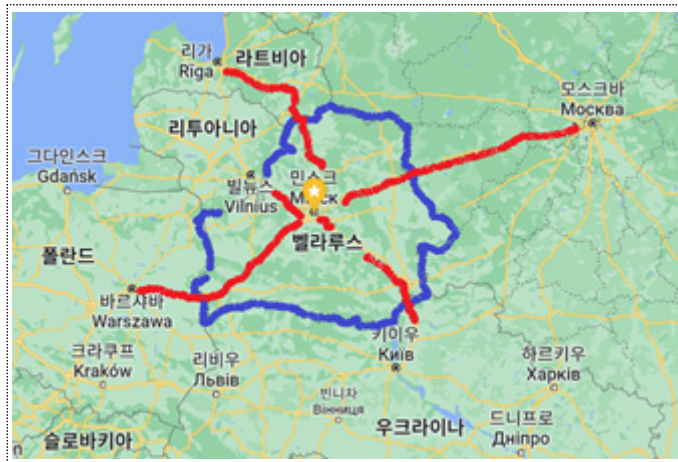
나. 벨라루스-주변국간의 국경 갈등 심화

▣ '24년 2~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실시 계획

- 나토(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주둔, 벨라루스 내 전술핵 배치 등 긴장 고조에 따른 경계 태세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한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 추진 예정
 - 총 32개국(나토 31개국 + 스웨덴)의 병력 약 4만명, 군함 50여 척의 참여와 함께 전투기 훈련, 테러 방지 훈련 등 실시 추진

▣ 폴란드와 발트 3국, 국가 안보 관련 위협 발생 시 벨라루스 국경 전면 폐쇄 경고

- 벨라루스는 내륙 국가로 5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봉쇄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을 통해서 제한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아직 가능한 상황



- 국경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바그너 그룹 활동, 불법 이민자 문제 등 긴장감 지속에 따라 점차적으로 출입 가능한 국경검문소 축소 추세
 - 리투아니아 : 검문소 4곳 운영(벨라루스 까멘니로그, 코트롭까, 베냐코니, 브리발까)
 - * '23.8.18. 슴스카스(벨라루스 로사), 베레시우스(벨라루스 비드지) 폐쇄
 - * '23.8.28. 라보리슈케스(벨라루스 코트롭까), 라이가르다스(벨라루스 브리발까) 폐쇄 검토
 - 라트비아 : 검문소 1곳 운영(벨라루스 그리고롭쉬나)
 - * '23.9.19. 실레네(벨라루스 우르바니) 폐쇄

- 폴란드 : 검문소 1곳 운영(벨라루스 브레스트) ※ 일반인 출입국 불가
* 폴란드 비자 소지자, 폴란드 국민 가족, EU 회원국 국민 등만 제한적 이용 가능

- 국경 간 장벽 설치 추진 계획(라트비아 - 3단계에 걸쳐 설치 예정(172km))

다. 2024년 벨라루스 하원 및 지방선거 실시

▣ 선거법 개정('23.3.3.)에 따라 2024년 2월 25일로 하원 및 지방선거 일정 변경

- '21년 10월 법률안 개정을 통해 '23년 11월 동시 개최 예정이었던 하원 및 지방선거가 약 3개월 후로 연기되어 2024년 2월에 진행될 예정
* 하원 의원 : '22.2.7. 개헌안을 통해 임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 '20년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있는 관계로 1년 앞당겨 실시('16년 9월 → '19년 11월 → '24년 2월)
- (하원 선거) 총 의석은 110개로 약 500여 명이 입후보하여 대부분 여권 후보가 당선되는 편이며 야권 성향 정치인의 비중은 소수를 차지
- '24년 선출되는 하원 의원부터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조정
* '19년 총선 당시 513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대표 등 외국인이 참관
- (지방선거) 전체 의원 수가 감소 추세('10년 21,288명 → '18년 18,110명)이나 재선 의원 비중은 증가('10년 52% → '18년 56%)하고 있으며, 야권 출신 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 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의 재등록을 추진 중이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의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폐쇄 예정
- '23.8.29. 기준 7개 정당(공화당, 국민합의 사회민주당, 녹색당, 사회민주당 Hramada, 통합시민당, 보수기독교당, 민족전선당)의 폐쇄 결정 및 폐쇄 정당 수 증가 예상

▣ 새 선거법에 따라 2025년 선출 예정인 대통령부터 3연임 금지 시행

- '22년 2월 대통령 3연임 금지 내용이 국민투표 통과(65% 찬성) 후 헌법 개정되었으며, '25년 7월 20일 이전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 예정
* '04년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임기 제한 폐지로 종신 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나, 국민반감 완화를 위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두 번 연임까지만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 대통령직은 한 사람이 두 번만 연임 가능하며, 대선 후보의 연령 제한이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 선거일 기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
 - '25년 대선에서 현 루카셴코 대통령의 승리 시 2035년(81세)까지 41년간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하며, 퇴임 시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 벨라루스 국민회의'의 의장 취임 가능

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외 경제협력 강화

▣ 서방의 對벨라루스 경제제재 강화에 따른 협력 확대/수입다변화 추진 노력

- (러시아 / EAEU / CIS)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경제의존도 심화 속 EAEU/CIS 국가 상호간의 역내 무역·투자 규모 급증 추세
 - 러시아 : '23년 1~7월 벨라루스와 상호 교역량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 17개 수입대체 및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 중이며, 우주항공을 포함한 신규 12개 프로젝트 협의 중(러시아의 차관 지원 계획)
 - * '22년 벨라루스 대외무역의 러시아 비중은 약 56%(430억 달러) → '23년 1분기 58%
 - * '23년 상반기 러시아의 대외수입 비중은 중국(1위, 42%), 터키(2위, 13%), 벨라루스(3위, 12%) 순임
 - 카자흐스탄 : '23년 1~7월 벨라루스와 상호 교역량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 상호 교역량(1~7월) 7억 달러 규모로 '23년 말까지 10억 달러 상회 전망
 - * 카자흐스탄을 통한 전자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배터리 등), 자동차 수입 대폭 증가
- (중국) CIS 국가들에 이어 무역·투자 규모 확대 중. 벨라루스-중국 서비스·투자 FTA 협상 추진 증으로 투자, 노동력 이동 분야 집중 논의
 - 16억 위안 규모의 15개 무상원조·투자 프로젝트 협의 및 진행 중
 - * 스포츠 경기장, 수영장 건설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내 전기차 개발, 중국 중심 산업단지(그레이트 스톤) 인프라 개발 등 신규 프로젝트와 중국 의약품의 국가등록 절차 간소화 등 추진
-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 확대 추구
 - 파키스탄 : 외교장관 회담('23.5월), 공무원 상호 무비자 제도 도입, 벨 트랙터 및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 검토, 농업·의료분야 협력 확대 희망
 - 이란 : 벨 대통령의 공식 방문(3월) 이후 답방 추진 계획
 - 남아공 : 협력 프로젝트 이행, 이중과세 방지/비자 간소화 협정 추진, 벨라루스 칼륨비료 제재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등 양자 현안 검토
 - 적도기니 : 오비앙 대통령의 공식 벨라루스 방문 및 정상회담 개최(9.6.~9.8.)
 - * 산업화, 농업현대화,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추진

- 쿠바 : 외교장관 회담('23.7월), 양국간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벨산 기계 및 부품, 식품 등 공급 확대 추진
- 짐바브웨/쿠바/니카라과 : 외교장관 상호방문, 상호비자 면제, 국제무대 협력, 경제 협력분야 공동위원회에 관한 정부간 협정 체결 등, 벨 농기계/특수장비 공급 협의 등 국가별 산업 특성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현 루카셴코 대통령이 1994년 당선 이후 30년째 장기집권 중이며, 2024년 하원 및 지방선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있음. 2020년 8월 대선에서 대통령의 6선 성공과 관련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바 있으며, 야권·언론 탄압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지속 중임. 지정학적 위치상 벨라루스는 교역·투자에 있어 러시아 의존도가 큰 국가로,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부존자원이 없는 벨라루스는 공업/IT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지님. '22년 2월에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서방의 추가 경제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공급망 혼란,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겪었으나 CIS, 중국, 비서방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통해 2024년 벨라루스 경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가. 정치 환경

▣ 벨라루스의 최근 정치 동향

-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현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 이후 30년간 구소련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유지 중
 -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3년 기준 30년째 집권 중으로, '20.8.9. 대선에서 80.1%로 6선에 성공하였으나,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편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 정부는 야권·언론을 지속 탄압
 - * '21년 5월 타국 민항기를 벨 영공에서 강제 착륙시켜 탑승 중이던 야권 언론인 체포
 - * '23년 9월 해외 체류 중인 벨라루스 국민 대상 여권의 해외 발급·갱신 금지법 서명
- 2024년 하원/지방선거, 2025년 대선 전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정권 유지 기반 마련
 - '22년 2월 동일인의 대통령 3연임 금지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으나, 이는 '25년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 예정
 - * '25년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승리 시 '35년까지 대통령직 유지 가능
 - 대통령 퇴임 후에도 최고 국정 자문 기구의 의장직 역임 가능
 - 상/하원 의원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3년 3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하원/지방선거 일정 변경 및 정당 재등록 추진

▣ 벨라루스의 정부 체제

- 벨라루스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분리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
- (입법부) 입법부(Natsionalnoye Sobranie)는 1996년 11월 채택된 개정헌법에 따라 양원제로 구성
 - 하원(Palata Predstaviteley)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임기 5년의 1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발의, 법률안 심의 등 기능을 수행
 - 상원(Sovet Respubliki)은 지역대표제 등으로 선출된 임기 5년의 6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수도인 민스크시와 6개 주(Oblast)가 각각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8명을 임명. 상원은 개헌안 승인,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검찰총장·중앙은행장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
- (사법부) 사법부는 헌법재판 및 대통령 탄핵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민사·형사·행정·군사 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 경제소송을 담당하는 경제법원으로 구성
 - 헌법재판소는 벨라루스의 최고법원으로 대통령·의회·대법원 등이 제기하는 위헌법률 심사, 대통령 탄핵 등 헌법 문제를 심의,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12명 중 6명은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은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
 - 고등법원(Regional Court)은 6개 주도에 설치돼 있으며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각 행정구역별로 설치
 - 경제법원은 개인, 법인, 외국인 간 경제·경영 문제를 관할하는데, 최고경제법원, 주 경제법원, 민스크시 경제법원이 있음
- (행정부)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하나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이 비교적 막강한 편
 - (대통령)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재직 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벨라루스의 국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임
 - (내각(Sovet Ministrov)) 내각은 총리, 부총리 5명, 각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총리 사임, 의회의 내각 불신임 시 각료 전원이 사퇴함.
 - * '23년의 경우 대폭적인 개각보다 소폭의 일부 개각을 단행 중(7월 교통통신부 장관, 주택공공서비스부 장관, 대통령 보좌관 등 14명의 중앙·지방 정부기관 주요 인사 신규 임명, 8월 농식품부 장관 신규 임명, 9월 고멜주 담당 대통령 보좌관 등 14명 신규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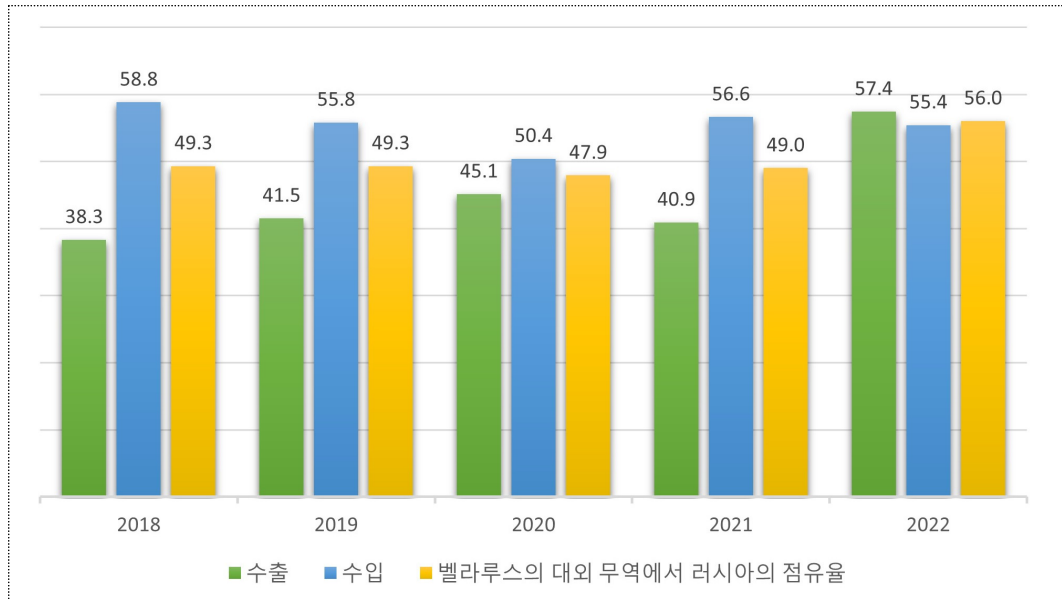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6개 주(州, oblast)로 구성되며 단체장(주지사)은 대통령이 임명함. 주지사는 주 집행위원회(oblispolkom)의 장으로서 주 행정을 관장함

나. 경제 환경

▣ 벨라루스 경제 전반의 특징

- 벨라루스 경제는 대외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러시아의 경제 상황 및 에너지 특혜(벨라루스에 대한 가스, 원유 염가 수출, 정제유 수입 관세 인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벨라루스 대외 교역에서의 러시아 비중〉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과 '20년 8월 대선 이후 정국 불안, 벨-러 에너지 갈등 미결, 환율 악화 등으로 -0.9% 성장하였으나, 2021년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약 2.3% 성장
 - '21년 경기회복의 배경에는 코로나 경기침체의 회복세, 국제유가 상승세, 러시아와 석유공급 갈등 완화 및 러시아 경제원조 등의 대내외 요인이 작용

- 벨라루스 정부는 장기적으로 그동안 금융 지원의 대가로 국영기업 민영화 등 정치·경제적 입김을 강화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는 대외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을 추진코자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對러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22~2023년 벨라루스-러시아 간 경제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8개 경제통합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주요 조치 중 약 70% 이상이 완료

▣ 벨라루스 경제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및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22년과 달리 경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경제지표의 긍정적 전망 우세
 - (벨라루스 정부) 비서방 국가와의 교역 다변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EAEU/CIS 차원의 산업·투자 협력 강화, 물류 결제 시스템 재편 등을 통해 '23년 GDP 성장을 3.8%로 전망
 - * 러시아의 주도인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은 벨라루스의 '23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 (국제기구)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의 경제 회복 영향에 따른 벨라루스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 전망, EAEU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경제제재 상황에 대한 적응을 통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국제기구별 벨라루스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기구	2023년 경제성장률	2024년 경제성장률
국제통화기금(IMF)	0.7%	1.2%
세계은행(WB)	0.6%	1.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0%	1.3%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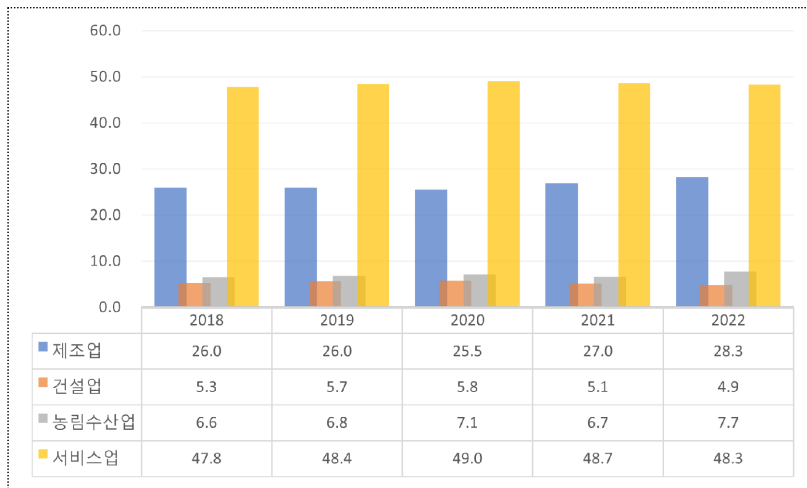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3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벨라루스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서방과의 갈등 심화로 러시아/EAEU 및 중국으로의 경제 의존도는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다. 산업 환경

▣ 벨라루스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 CIS 국가 대비 적은 광물자원 보유로 공업에 집중된 산업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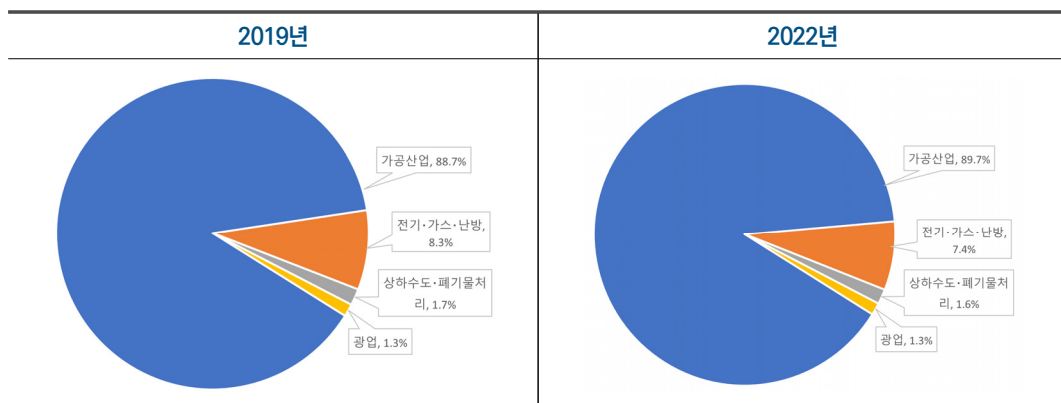
- 벨라루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벨라루스의 산업별 GDP 비중은 대략 제조업 28.3%, 도소매 유통업 9.5%, 농업/임업/수산업 7.7%, 정보통신 6.6%, 교통물류업 5.0%, 건설업 4.9% 등으로 나타남
 - 제조업 : 가공산업(89.7%), 전기·가스·난방(7.4%), 상하수도·폐기물처리(1.6%), 광업(1.3%)

〈벨라루스 GDP 내 산업별 비중〉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제조업 구조〉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는 러시아 등 EAEU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역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벨라루스의 역내 비교우위 산업인 석유화학, 기계, ICT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되었음

① 석유화학 분야

- 구 소련 시절부터 석유화학산업 분야 비교우위 및 기반시설 보유
- 공업의 31%가 석유·화학 분야, 동 분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5~40%를 차지
 - * 석유정제, 광물질 비료(질소·칼륨인산, 특히 칼륨(포타슘) 수출 세계 점유율 21.7%로 캐나다에 이은 2위('21)를 차지), 기초화학제품 생산은 세계적 수준
- 주요 기업 : 석유 정제(Naftan), 비료(Belaruskali), 화학(Grodno Azot), 타이어(Belshina)
 - * 우리나라 對벨라루스 수입품목 1위는 벨라루스칼리가 수출하는 칼륨비료로 '21년 총수입액의 80%(6,500만 달러)를 차지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입 금지 중

② 기계산업 분야

- 광산용 덤프트럭, 농기계 트랙터 부문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
- 운송기계, 기계류의 수출이 전체 대외수출의 20~25%를 차지
- 주요 기업 : 특장차(BelAZ), 상용차(MAZ), 트랙터(MTZ), 철강(BMZ), 가전(ATLANT)

Belgee社

- 2012년까지 벨라루스 내 현지 승용차 제조업체가 전무했으나, 2012년 3월 중국 Geely(지리)社가 2.5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으로 설립한 Belgee(<http://belgee.by/>)社가 승용차 및 SUV를 SKD 조립생산하여 2013년 2월부터 양산 중. Geely 브랜드로 매년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생산된 자동차의 50% 이상이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차량 수입이 제한되자 2023년 1~8월 벨라루스 내 승용차 판매의 약 75%를 벨-중 합작 차량인 Geely가 차지
 - * 약 11,700 대의 판매 승용차 중 8,800대가 Geely

③ ICT산업 분야

-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 IT산업 종사 고급 인력 풍부
 - * SK하이닉스, 벨 IT기업 Softeq社의 펌웨어 사업부 인수합병(1천만 달러 규모, 2014.06)을 통해 현지 진출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사업 축소 중
- 벨 정부, ICT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Hi-Tech Park 설립
- 주요 기업 : Wargaming(세계적 온라인게임 '월드오브탱크' 제작), EPAM(뉴욕증시 상장)
 - * Wargaming社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벨라루스에서 사업 철수 후 글로벌 조직 운영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체코, 우크라이나, 영국, 독일, 세르비아, 폴란드)

Hi-Tech Park

- 벨라루스 IT 인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Hi-Tech Park는 '0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3년 기준 1,018개의 ICT 관련 기업이 입주 중(한국의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
 - 입주기업 35% 이상이 외국 투자 또는 합작기업이며, R&D·생산제품의 90% 이상은 북미, EU 등으로 수출 및 적용 목적, '23년 기준 ICT 전문인력 60,000명 이상이 근무
- 한국은 '14년 9월에 Hi-Tech Park 내에 '한-벨 정보접근센터'를 개소, 센터 내 한국문화 체험 라운지, 인터넷 라운지, ICT랩, 세미나룸을 갖추고 있었으며 매년 약 9천 명 이용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용 중단 중

▣ 에너지 자원 부족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 중심의 공업과 IT산업 발달

- 벨라루스는 여타 CIS 국가들과 달리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공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여타 국가와 달리 소련 해체 후에도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23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53위('22년 46위)로 러시아(34위)를 제외하고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참고로 러시아 인구는 벨라루스 인구의 약 16배이며 GDP 규모는 약 31배임

〈제조업 경쟁력 지수 CIP-2023 주요국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독일	1	이탈리아	11
중국	2	러시아	34
아일랜드	3	벨라루스	53
한국	4	카자흐스탄	67
미국	5	우크라이나	69
대만	6	아르메니아	93
스위스	7	몰도바	104
일본	8	아제르바이잔	106
싱가포르	9	키르기스스탄	121
네덜란드	10	타지키스탄	124

자료: UNIDO (<https://www.unido.org>)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벨라루스는 132개국 중 종합 88위(’22년 77위)를 차지했으나, 정치환경, 신용·투자 지표 등을 제외한 인적자원·연구(Human capital and research)는 37위, 지식·기술 성과(knowledge and technology outputs)는 47위를 차지

국가	종합	제도	인적자원 및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사업 성숙도	지식 및 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
벨라루스	(’23) 80	128	37	71	99	74	47	88
	(’22) 77	130	35	67	96	72	40	91
	(’21) 62	85	38	59	101	69	37	93
	(’20) 64	84	37	58	107	67	46	97

자료: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https://www.wipo.int>), 조사대상국 132개국

라. 정책·규제 환경

▣ 서방의 경제제재 대응을 위한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서방의 벨라루스 제재 강화에 따라 경제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EU 등에서 수입해오던 일부 품목을 국산화하며,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입 대체 프로젝트 추진 계획
- 이를 위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15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발표(’22.10.6.)
 - 자금조달은 크게 2개 분야(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계 제조)로 나뉘며, 17개 수입대체 및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 중으로 최근 우주항공을 포함한 신규 12개 프로젝트 협의 중(러시아의 차관 지원 계획)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국가들이 산업화 지도(Industrialization map)를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전기, 화학, 야금 등 25개 분야의 공동 협력 추진 중(총 예산 약 210억 달러 규모)
 - 벨라루스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를 통해 석유화학, 금속, 건설자재 분야의 추가 협력 강화 제안

▣ 강력한 외환 통제 및 금융제재로 인해, 기업의 수출입 거래에 애로사항 다대

- 벨라루스“대외무역거래법령”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외무역 거래 건을 위한 해외 송금 후 90일 내에 물품의 세관 신고가 이뤄져야 함
 - 물품이 기한 내 벨라루스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입기업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음. 벌금은 하루당 송금액의 2%가 부과되며 벌금은 송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한 내(90일 내) 세관 신고가 불가할 경우 벨라루스 중앙은행에 세관 신고 지연을 신고하고 확인받게 되면 벌금 부과 없이 세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세관 신고 연장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1년에 1회만 허가
-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세관 신고 연장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이 부적당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를 제출할 시
 - 대외무역(세관 신고) 연장 신청일이 대외무역 완료일(송금 후 90일 이내)을 넘어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벨라루스 정부와 국립은행이 정한 법령 또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대외송금 후 제품 현지 도착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는 만성적으로 겪는 벨라루스의 외환 보유고 부족 현상과 자국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함인데, 벨라루스 수입기업들도 자국 은행이 아닌 러시아나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의 은행을 통해 대외 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금융제재에 따른 對러/벨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로 달러 중심의 대금 결제가 차단됨에 따라 벨라루스 역시 비우호 국가(EU, 미국, 영국, 호주 등 39개국) 기업 대상 대금 지급을 제한하는 결의안 및 제한 조치 도입

* 벨 중앙은행은 외환 통화바스켓에 달러·유로화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 추가 및 비중 확대

▣ (ESG)국제 신용평가사 Moody's의 ESG 평가보고서상 '부정적' 등급 부여

- 벨라루스의 거버넌스(G) 부분은 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및 '20년 대선 부정선거, 야권 탄압 등으로 낮은 평가 등급 적용
 - '22.3.1. MSCI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벨라루스의 ESG Government Rating을 BB → B(부정적 전망)으로 하향 조정

- '23.6.6. 벨라루스 신용등급을 Ca → C(투자부적격 수준)로 하향하였으며, 국제사회의 對벨 제재가 증·장기적 경제 피해와 투자자 손실 야기 우려
 - * S&P社は 벨 정부의 예산, 부채 및 금융 관련 정보의 제한적 제공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 일시 중단을 발표('23.9.11.)
-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2023년 180개국 중 157위 차지로 언론 및 기자에 대한 억압 지적('23.5.3.)
- 하지만, 벨라루스는 SDG(지속가능발전목표) Index에서는 2023년 166개국 중 34위 ('22년 34위, '21년 24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
 -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활용 분야에서 적극적 활동
 - 벨라루스의 약 100여 개 기업이 CSR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통신, IT, 소매 분야 등 28개 기업이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ESG 경영 강화 추진
 - * '21.10.14. 민스크 내 ESG 컨퍼런스(주제 : ESG와 지속가능 발전, 벨라루스는 준비되었는가?)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22년 러-우 사태 이후 소강 상태

※ 현재 벨라루스는 러-우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다변화로 경제 안정화 추세를 보임. 따라서, EAEU 5개국에 형성된 단일 시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CIS뿐만 아니라 BRICS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23년 한국의 對벨 수출은 러-우 사태 이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등을 통한 재수출 물량을 고려하면, 수출 잠재력이 높은 편임. 또한 벨라루스를 단순 상품수출 시장으로만 보기보다는 EAEU, EU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는 저임금·고효율의 투자 진출 대상국으로도 고려 필요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단일 시장 형성

- 벨라루스는 인구 1,000만 미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EAEU 출범으로 인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실질적인 공동 시장 기반 마련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 러·벨·카자흐 3국 관세동맹을 토대로 '15.1월 출범한 경제연합체, 현재 회원국 5개국 (3국+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특히, 러시아의 주요 도시이자 최대 소비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700여 km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차량(trucking)을 통한 운송 시간도 10시간 미만에 불과
-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무관세로 교역이 가능하며, 국경 간 세관이 없는 Free Pass 지역임. 따라서, 사실상 벨라루스로 반입된 수입품이 러시아에서 유통이 되는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러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 다만, 제품인증(Certification)이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은 관계로, 품목에 따라 러시아 유통을 위해 러시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인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발생

▣ CIS와 EU 양대 경제권 모두 공략 가능한 물류·유통 및 투자 진출의 요충지

- 벨라루스는 러시아 이외에도 폴란드, 발트 3국,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내륙 물류의 허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임
 -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물류 단절로 애로를 겪고 있으나 EAEU 및 중국으로의 물동량 확대에 대체 방안을 마련
- 2023년 중국의 벨라루스 투자 진출(정부차관 제공 등)이 활발하고, 벨라루스 내 교통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 제품의 벨라루스 판매 뿐만 아니라 유럽 내 유통 루트로 벨라루스를 활용코자 하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음
- WTO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위해 다양한 우회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진출의 베이스캠프로 벨라루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임
 - 벨라루스 내 제조 기반이 타 CIS 국가에 비해 명맥을 유지하고 잘 갖춰져 있는 편이지만, 제조시설 노후화, 일부 산업(운송기계, 전자제품, 제약 등) 편중 등으로 외국기업 투자 진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AEU 국가간 교류 및 경제통합 가속화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회원국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EAEU 국가간 공동 산업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자금 지원, 역내 시장 무역·투자 장애요소 제거, 연합 내 통합 정보 시스템 개발, 전자 상거래 발전 등을 적극 추진 중
 - 벨라루스 및 EAEU의 수입 대체 산업/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진출 시 Made in EAEU의 장점을 누리면서 EAEU 시장진출 확대도 가능

나. 교역

▣ 수입 동향

- 벨라루스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가스(러시아로부터 수입), 기계 및 차량, 전자기기, 철강, 의약품, 의료/광학기기 등의 10대 품목군이 전체의 70%를 차지
 - 2022년 3월 기준 주요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49.12%), 중국(14.15%), 독일(4.78%), 우크라이나(4.15%), 폴란드(3.13%) 등임.

- 20대 수입국의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20년 대선 이후인 '21년부터 서방의 제재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22년의 경우 대폭 감소
- 2023년 1~7월 기준 총수입액은 24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131.7억 달러, 비-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114.3억 달러를 기록

〈벨라루스의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21		2022		2023.1-7 (전년 동기 대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41,785	27.5	38,468	△7.9	24,591	22.5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의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21					2022.1-3(전년 동기 대비)				
	품목군 전품목	HS -	금액 26,243.0	비중 100	증감 △15.66	품목군 전품목	HS -	금액 5,369.8	비중 100	증감 △1.74
—	연료/에너지	27	N/A	—	—	연료/에너지	27	N/A	—	—
1	보일러/기계	84	3,395.2	12.94	0.79	보일러/기계	84	656.9	12.23	△8.93
2	전자기기	85	2,938.7	11.20	25.02	전자기기	85	540.6	10.07	△6.15
3	철강	72	2,331.2	8.88	66.78	철강	72	474.9	8.84	5.02
4	플라스틱류	39	1,587.2	6.05	△0.51	플라스틱류	39	336.2	6.26	11.31
5	운송기기	87	1,122.7	4.28	△18.59	철강제품	73	228.3	4.25	15.11
6	철강제품	73	1,051.8	4.01	14.02	운송기기	87	220.8	4.11	△2.44
7	의약품	30	980.1	3.73	△1.95	의약품	30	179.5	3.34	△8.59
8	의료/광학기기	90	686.5	2.62	△0.13	채유용 종자	12	169.6	3.16	83.81
9	종이/제지류	48	612.2	2.33	23.75	종이/제지류	48	135.7	2.53	18.11
10	과실/견과류	08	537.8	2.05	1.96	의료/광학기기	90	126.6	2.36	△8.29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벨라루스의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21				2022.1-3(전년 동기 대비)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26,243.0	100	△15.66	전세계	5,369.8	100	△1.74
1	러시아	11,783.1	44.90	△26.39	러시아	2,637.7	49.12	17.54
2	중국	3,280.8	12.50	△6.12	중국	759.8	14.15	△2.24
3	독일	1,504.8	5.73	△10.32	독일	256.7	4.78	△25.38
4	우크라이나	1,439.5	5.49	5.49	우크라이나	223.0	4.15	△25.92
5	폴란드	1,064.1	4.05	△12.54	폴란드	168.0	3.13	△28.51
6	이탈리아	723.5	2.76	6.14	터키	152.7	2.84	△6.08
7	터키	685.6	2.61	16.15	이탈리아	115.8	2.16	△18.43
8	미국	396.1	1.51	△12.19	프랑스	66.0	1.23	△8.45
9	프랑스	316.2	1.20	5.10	미국	56.8	1.06	△29.99
10	스위스	270.9	1.03	9.04	리투아니아	44.7	0.83	△20.11
	대한민국(25)	82.3	0.31	△30.41	대한민국(34)	15.2	0.28	△10.11
	일본(19)	126.9	0.48	△21.24	일본(24)	24.3	0.45	△24.10
	대만(32)	84.3	0.32	△2.34	대만(30)	18.3	0.34	6.11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통적으로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연료/에너지 (약 20%) 및 유기화학, 비료 등의 일부 수입 통계 미공개
 - 벨라루스 통계청이 '21년 자료부터 미반영하여 전체 수입액 규모는 감소

▣ 수출동향

-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의 가공품), 화학제품(칼륨비료), 기계 및 차량(트랙터 및 트럭), 농식품류, 목재, 금속류 등의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
- 벨라루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7월 수출액은 총 224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그중 CIS 국가로의 수출액은 157억 4,300만 달러, 기타 국가 수출액은 67억 1,000만 달러를 기록

〈벨라루스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1-7 (전년 동기 대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39,987	37.0	38,369	△4.0	22,453	9.9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21					2022.1-3(전년 동기 대비)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
	전품목	-	23,452.8	100	△13.97	전품목	-	5,492.9	100	14.13
-	연료/에너지	27	N/A	-	-	연료/에너지		N/A	-	-
1	낙농품	04	2,714.9	11.58	12.28	낙농품	04	682.8	12.43	9.09
2	목재	44	2,331.2	9.94	54.48	목재	44	536.5	9.77	25.12
3	보일러/기계	84	1,803.3	7.69	20.51	보일러/기계	84	385.8	7.02	6.47
4	철강	72	1,341.2	5.72	55.36	전자기기	85	332.3	6.05	20.60
5	전자기기	85	1,299.5	5.54	31.53	철강	72	298.2	5.43	4.93
6	철강제품	73	1,115.5	4.76	39.57	철강제품	73	275.3	5.01	26.26
7	가구류	94	1,042.4	4.44	46.02	가구류	94	242.4	4.41	13.14
8	플라스틱류	39	1,000.7	4.27	△1.22	플라스틱류	39	238.1	4.34	24.01
9	식용 육류	02	960.8	4.10	19.39	식용 육류	02	226.2	4.12	12.25
10	운송기기	87	828.7	3.53	△59.93	동식물성유지	15	201.2	3.66	113.52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벨라루스의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21				2022.1-3(전년 동기 대비)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23,452.8	100	△13.97	전세계	5,492.9	100	14.13
1	러시아	13,590.5	57.95	7.52	러시아	3221.2	58.64	12.61
2	폴란드	1,585.3	6.76	34.76	폴란드	422.6	7.69	42.30
3	우크라이나	1,215.4	5.18	△60.91	리투아니아	263.6	4.80	9.05
4	리투아니아	1,185.1	5.05	15.13	우크라이나	193.0	3.51	△18.79
5	독일	793.6	3.38	△12.10	독일	178.6	3.25	9.82
6	카자흐스탄	748.7	3.19	0.94	카자흐스탄	146.0	2.66	△1.45
7	중국	556.1	2.37	31.00	중국	138.8	2.53	21.04
8	라트비아	467.1	1.99	52.24	라트비아	100.2	1.82	14.46
9	네덜란드	280.3	1.20	59.33	네덜란드	68.3	1.24	1.21
10	우즈베키스탄	181.6	0.77	△22.93	미국	57.4	1.04	124.82
	대한민국(57)	10.5	0.04	14.27	대한민국(52)	2.7	0.05	31.10
	일본(58)	9.1	0.04	30.37	일본(56)	2.0	0.04	137.63
	대만(88)	1.6	0.01	△22.48	대만(98)	0.2	0.00	△71.90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연료/에너지 (약 13%) 및 유기화학, 비료 등의 일부 수출 통계 미공개
 - 벨라루스 통계청이 '21년 자료부터 미반영하여 전체 수출액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비료 수출 등은 큰 폭으로 감소
- 2022년 3월 기준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58.64%), 폴란드(7.69%), 리투아니아 (4.80%), 우크라이나(3.51%) 등임. 20대 수출국의 대부분이 유럽·CIS 국가들임
 - 2022년 3월 기준 CIS 국가들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7.23%를 차지함
 - 2020년부터 중국이 Top10 수출대상국에 진입하면서 중국과의 교역 증가세

▣ 경쟁동향 (※ '22년 4월 이후의 세부 통계가 미반영되어 있으나 참고용으로 기재)

- 수입 1위 대상국인 러시아는 EAEU 회원국으로 관세동맹이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의 절반 이상이 연료/에너지 분야의 원유/가스 제품인 관계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중국·일본·대만 및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 제품 분석
- 중국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HS 2단위 기준)
 - 전자기기, 보일러/기계, 유기화학품, 운송기기/부품, 철강, 플라스틱, 신발제품에서 우리와 경쟁
 - 벨라루스의 2위 수입국으로 수입 비중 점차 확대 추세(12.5%→14.2%)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전자기기 744,533,700 (15.5)	보일러/기계 514,264,400 (24.1)	유기화학품 174,886,000 (19.2)	운송기기/부품 170,504,600 (11.5)	플라스틱류 120,111,400 (23.3)
2019	전자기기 905,820,200 (21.7)	보일러/기계 578,684,700 (12.5)	운송기기/부품 246,102,500 (44.3)	유기화학품 180,131,300 (3.0)	신발류 179,984,900 (70.4)
2020	전자기기 802,622,400 (△11.4)	보일러/기계 699,468,100 (20.9)	운송기기/부품 251,151,900 (2.1)	유기화학품 179,863,200 (△0.2)	신발류 172,469,000 (△4.2)
2021	전자기기 897,614,800 (11.8)	보일러/기계 623,316,900 (△10.9)	신발류 165,234,100 (△4.2)	운송기기/부품 159,777,600 (△36.4)	철강제품 125,658,700 (△9.7)
2022 1-3	전자기기 220,638,000 (16.9)	보일러/기계 169,894,100 (22.7)	운송기기/부품 35,918,600 (18.5)	철강제품 30,380,700 (28.6)	플라스틱류 26,835,600 (8.1)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독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HS 2단위 기준)
 - 보일러/기계, 의약품, 운송기기/부품, 플라스틱류, 각종 화학제품, 전자기기, 의료/광학기기에서 우리와 경쟁
 - 러시아, 중국에 이어 벨라루스의 3위 수입국이나 서방의 경제제재 영향 등으로 '20년 이후 큰 폭의 수입 감소세를 나타냄

(단위: U\$,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보일러/기계 517,958,200 (7.6)	운송기기/부품 244,399,100 (23.6)	플라스틱류 151,676,700 (△1.2)	전자기기 145,918,300 (△8.1)	의료/광학기계 101,354,700 (△11.2)
2019	보일러/기계 533,759,300 (3.1)	운송기기/부품 201,222,700 (△17.7)	플라스틱류 147,117,400 (△3.0)	전자기기 135,980,300 (△6.8)	의약품 118,931,900 (35.1)
2020	보일러/기계 531,931,700 (△0.3)	플라스틱류 142,818,900 (△2.9)	운송기기/부품 140,151,000 (△30.4)	의약품 140,033,700 (17.7)	전자기기 106,714,500 (△21.5)
2021	보일러/기계 435,675,200 (△18.1)	의약품 151,620,300 (8.3)	전자기기 121,743,600 (14.1)	플라스틱류 119,001,700 (△16.7)	의료/광학기계 92,048,900 (△3.9)
2022 1-3	보일러/기계 70,565,000 (△32.3)	의약품 25,812,600 (△7.3)	플라스틱류 22,597,300 (△11.2)	화학공업 생산품 19,401,300 (△12.6)	전자기기 14,912,900 (△36.6)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일본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HS 2단위 기준)
 - 의료/광학기계, 보일러/기계, 의약품, 전자기기, 운송기기/부품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으나 경제제재로 수입 감소 추세

(단위: U\$,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보일러/기계 35,587,900 (△4.8)	의료/광학기계 26,612,000 (△19.26)	운송기기/부품 17,863,200 (114.7)	전자기기 12,062,400 (25.1)	의약품 5,997,600 (17.8)
2019	보일러/기계 37,489,000 (5.3)	의료/광학기계 28,455,400 (6.9)	전자기기 12,183,300 (1.0)	운송기기/부품 11,478,500 (△35.7)	의약품 7,411,400 (23.6)
2020	보일러/기계 62,414,600 (66.5)	의료/광학기계 31,330,100 (10.1)	의약품 13,295,000 (79.4)	전자기기 11,557,300 (△5.1)	운송기기/부품 7,634,900 (△33.5)
2021	의료/광학기계 36,262,100 (15.7)	보일러/기계 30,364,300 (△51.4)	의약품 13,522,200 (1.7)	전자기기 12,932,700 (11.9)	운송기기/부품 6,314,800 (20.6)
2022 1-3	의료/광학기계 22,275,900 (23.9)	보일러/기계 20,813,100 (△15.9)	의약품 9,609,700 (82.9)	전자기기 8,151,800 (16.6)	운송기기/부품 9,162,200 (20.0)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대만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HS 2단위 기준)
 - 보일러/기계, 전자기기, 공구류, 운송기기/부품, 철강제품, 플라스틱류, 염료/착색제 /잉크 등에서 우리와 경쟁

▣ 주요 비관세장벽

- ① (전 업종 및 품목) 정부조달-정부구매 시 외국기업 차별
 -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 및 외국산 제품을 납품코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조달 납품의 기회를 차단하는 정책 시행 중

〈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단위: U\$,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보일러/기계 25,361,800 (5.2)	전자기기 19,841,000 (3.7)	공구류 9,266,400 (7.5)	운송기기/부품 8,853,300 (91.1)	철강제품 4,492,900 (27.8)
2019	보일러/기계 24,552,300 (△3.2)	전자기기 19,122,300 (△3.6)	공구류 7,222,000 (△22.1)	운송기기/부품 5,514,300 (△37.7)	철강제품 5,406,200 (20.3)
2020	보일러/기계 24,392,100 (△0.7)	전자기기 18,578,200 (△2.9)	공구류 6,420,500 (△11.1)	염료/착색제/잉크 4,901,700 (14.2)	철강제품 4,863,100 (△10.1)
2021	보일러/기계 22,754,400 (△6.7)	전자기기 19,949,000 (7.4)	공구류 6,236,000 (△2.9)	운송기기/부품 5,534,100 (14.9)	플라스틱류 5,445,200 (27.9)
2022 1-3	보일러/기계 5,160,200 (17.4)	전자기기 3,824,400 (△9.1)	운송기기/부품 1,328,900 (76.8)	철강제품 1,285,900 (19.0)	플라스틱류 1,220,700 (16.9)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벨라루스 반독점부법 No.35) 동 법규 가운데 세부조항 중 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우대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조달 입찰에서 벨라루스산 제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의 15%를 감산한 가격으로 외국 제품과 경쟁하고, 해당 벨라루스산 제품이 낙찰되었을 경우 응찰자가 최초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동 법규에 따른 외국기업의 잠재적 피해) 이러한 법규로 인해 벨라루스 제품과 외국산 제품이 같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할 경우 벨라루스산 제품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짐. 더욱이, 벨라루스가 회원국으로 있는 EAEU의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제품도 일정 서류를 구비할 경우 벨라루스 제품과 같이 국내산 제품으로 취급되어 입찰 과정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
- (동 법규의 효력기간) 동 법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반독점부법 No.35 내에 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관련 조항은 2013년 6월 26일 공포된 벨라루스 교역부법 No.14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던 조항임
 - 2017년 6월 28일부터 반독점부에서 동 조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외국기업 입찰 참여 제한 조치〉

- (벨라루스 각료회의법 No.206) 벨라루스 정부조달 시장에서 특정 상품(벨라루스 각료회의법 No.206에 목록 수록)에 있어, EAEU 회원국(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아닌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정부조달 진행 과정에서 EA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응찰한 응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응찰에 참여할 수 없음. 즉, EA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응찰하는 입찰 참가자가 아예 없거나 1명일 경우에만 해외 원산지 제품이 입찰에 참여 가능
 - 적용 대상 상품 목록 : 쿠키, 크래커, 설탕, 초콜릿, 향신료, 실, 천, 섬유 제품, 로프, 특정 유형의 옷, 질소, 산소, 규산염, 도료, 타이어, 침목, 모터, 엔진, 전선, 램프, 오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트랙터, 제초기, 수확기, 자동차, 크레인, 가구, 주사기 등
- (동 법규에 따른 외국기업의 잠재적 피해) 적용 대상 품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외국산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함.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류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에 잠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동 법규의 효력기간) 동 법규는 2016년 3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② (의약품) 현지 미등록 외국산 의약품 공공 조달 납품 시 우리 기업 차별

- 벨라루스에 미등록된 외국산 의약품이 벨라루스 보건부에 공공 조달 납품할 때, 특정 국가에 등록된 외국산 의약품에 한해서만 응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련 근거 개정 ('19.04.03 발효, '20.01.01, '20.04.08, '20.06.05 개정)
 - 문제는 국가를 특정하면서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특정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임
 - * (개정 전) ICH 회원국(EU/미국/캐나다/한국/일본/스위스/브라질/중국) 또는 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은 전자경매에 응찰할 수 있음
 - * (개정 후) 호주/미국/캐나다/스위스/일본/영국/아일랜드/독일/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 등록된 의약품만이 전자경매에 응찰할 수 있음
- 기존엔 대한민국에 등록된 의약품이 벨라루스 정부에서 조달 수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보건부장관훈령에 의하면 한국 의약품은 미등록 약품 조달에 참여할 수 없음
 - 우리 기업이 벨라루스에 의약품 수출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벨라루스에 등록시켜야 함.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특정 국가들은 벨라루스에 등록시키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임
 - 벨 의약품 등록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의약품당 1.5만~2.5만 달러임. 이에 우리나라 중견/중소 제약사 입장에서는 진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 2023년 벨라루스 내 의약품 공급 부족에 따라 일시적 응찰자격 확대 검토 중

다. 투자

▣ 벨라루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동향

- 벨라루스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011년 18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었으나, 이후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대선 직후 및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및 관계 악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함.
 -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요인은 기본적으로 투자 관련 법적 안정성이 미비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 관행 등 불안정한 투자환경에 기인함
 -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설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벨라루스 내 외국인 투자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대한 시행령 9조를 공포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보증 강화 및 정부 간섭 축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벨라루스 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6월
총투자유입	9,728.5	10,842.0	10,006.8	8,680.2	8,698.7	6,978.6	4,515.3
FDI	7,634.2	8,537.1	7,233.2	6,006.0	6,558.0	5,959.3	3,600.0
포트폴리오	8.4	3.9	6.7	4.8	4.3	1.3	0.8
기타	2,085.9	2,301.0	2,766.9	2,669.4	2,136.3	1,018.0	914.5

주: 연말 누계기준('23년은 상반기)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러시아가 전체의 56.1%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으며, 사이프러스가 14.7%, 네덜란드가 4.1%, 우크라이나가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방의 경제제재 및 관계 악화로 인해 2022년은 서방의 투자가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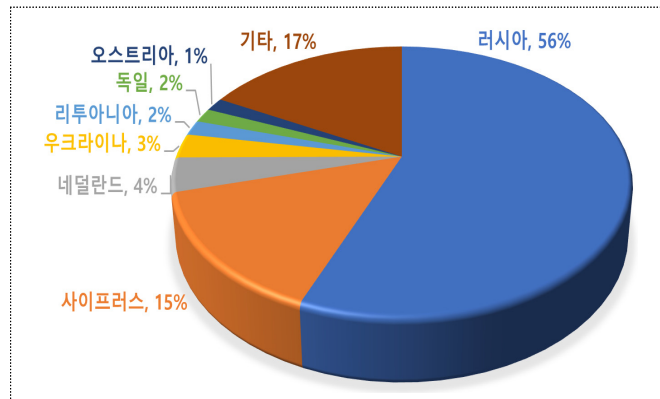
〈벨라루스 해외투자유입 국별 비중〉

(단위: %)

No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러시아	38.0	러시아	38.3	러시아	45.1	러시아	41.4	러시아	42.6	러시아	56.1
2	영국	26.6	영국	25.7	영국	18.0	사이프러스	9.4	우크라이나	15.2	사이프러스	14.7
3	사이프러스	7.2	사이프러스	7.8	사이프러스	7.6	오스트리아	7.4	사이프러스	13.8	네덜란드	4.1
4	아일랜드	3.6	폴란드	4.1	폴란드	4.4	영국	6.8	오스트리아	4.0	우크라이나	2.9
5	폴란드	3.3	우크라이나	3.7	오스트리아	4.4	우크라이나	5.2	라트비아	3.2	리투아니아	1.8
6	오스트리아	3.0	독일	3.4	우크라이나	3.7	아일랜드	3.5	영국	3.2	독일	1.7
7	중국	2.8	중국	3.1	기타	16.8	기타	26.3	폴란드	2.1	오스트리아	1.6
8	기타	15.5	기타	13.9					기타	15.9	기타	17.1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민스크 무역관 재구성

〈2022년 벨라루스 해외투자 주요국별 점유율〉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민스크 무역관 재구성

- 산업분야별 해외 투자 유입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유통업)과 물류 운수업, 정보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를 넘어 절대적임.
 - 이는 현지 소비시장을 겨냥해 유통 및 물류업에 주로 투자하거나 기존 제조업 재무적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IT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1-6월 벨라루스 산업분야별 해외투자유입 구조〉

(단위: 천 달러, %)

구분	투자유치 산업분야	투자유치 금액	비중
순위	전체산업	4,515,305.6	100.00
1	제조업	1,642,901.4	36.38
2	도소매업	1,383,036.1	30.63
3	물류운수업	526,047.1	11.65
4	정보통신업	401,673.9	8.90
5	건설업	254,368.6	5.63
6	금융보험업	95,647.3	2.12
7	부동산업	65,743.7	1.46
8	농림수산업	54,706.9	1.21
9	과학기술	35,100.0	0.78
10	공공행정서비스	25,846.0	0.57
11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16,966.1	0.38
12	숙박 및 요식업	7,498.6	0.17
13	보건복지	3,980.1	0.09
14	교육	897.4	0.02
15	기타 서비스업	892.4	0.02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민스크 무역관 재구성

■ 개선되고 있던 투자 환경 악화

- 세계은행이 매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Index)에서 벨라루스는 2014년 63위에서 2019년 37위로 매년 투자환경지수가 개선되다가 2020년 49위를 기록
 - 법인 설립, 건설 허가, 전기 공급, 부동산 등록, 통관 분야에서 꾸준히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21년 이후 자료가 미발표되고 있으며,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제재로 '22년~'23년 순위 발표 재개 시 큰 폭 하락 예상

〈벨라루스 Doing Business Index 추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이후
순위	57	44	37	38	37	49	미발표
점수(100점 만점)	68.26	72.33	74.13	75.06	75.77	74.30	

자료: The World Bank (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 조사대상국 190개국

〈2020년 벨라루스 Doing Business Index 분야별 순위〉

구분	순위	점수(100점 만점)
전체분야	49	74.3
법인설립	30	93.5
건설허가	48	75.2
전기공급	20	90.3
부동산등록	14	87.8
신용대출	104	50.0
소수투자자보호	79	58.0
세금납부	99	71.2
수출입통관	24	96.5
계약이행	40	67.6
파산해결	74	52.9

자료: The World Bank (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 조사대상국 190개국

- 세계 3개 신용평가기관은 2021년부터 벨라루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특히 2022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과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 이후 신용등급 대폭 강등
 - 거시경제 악화 및 그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인해 벨라루스 정부의 외화채무 상환능력 저하 전망

- 특히, '22년 7월 벨라루스 정부의 10년 만기 유로본드 채무 이행을 자국통화로 지불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신용등급을 디폴트 수준으로 하향
 - * Standard&Poor's : '21년 9월 부정적 B(B negative) → '22년 7월 디폴트 직면(C) → '22년 9월 선택적 디폴트(SD) → '23년 8월 정보 부족을 이유로 신용등급 평가 중단 선언
 - * Fitch : '21년 9월 부정적 B(B negative) → '22년 7월 CC/C → '22년 9월 디폴트(D)
 - * Moody's : '22년 7월 디폴트 직면으로 하향 조정 → '23년 6월 C로 하향
-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어오던 사회부패 및 관료주의도 점차 개선 중이었으나, '20년 이후 대선 부정선거, 야권 탄압 등으로 부정적 영향
 - 국제청렴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도 개선 추세에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

〈벨라루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추이〉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순위	68	70	66	63	82	91
점수(100점 만점)	44	44	45	47	41	39

자료: 국제청렴성기구(www.transparency.org), 조사대상국 180개국

▣ 투자 유망분야

- 제약산업은 벨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1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생산량은 27% 증가함
 - 2021년 1월 기준 1,768종의 약품을 생산 중이며 이중 1,596종이 복제의약품임
 - 전체 수출의 약 80% 이상이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고, 전문의약품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인도, 슬로베니아, 미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음
 - 벨 제약기업들, 우리 기업과의 현지 합작 생산·신약 기술 구매 등을 희망하고 있음

〈벨라루스 제약 생산 및 수출입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백만 US\$)	534.4	502.0	589.4	614.2	653.2	645.7	748.6
성장률(%)	6.4	△6.1	17.4	4.2	6.3	△1.1	15.9
수출(백만 US\$)	142.7	157.0	204.2	238.1	287.4	319.4	311.4
생산 중 수출비중(%)	26.7	31.2	34.6	38.8	44.0	49.5	41.6
수입(백만 US\$)	817.0	610.0	819.4	837.2	960.2	1,132.1	980.0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투자민영화청(NA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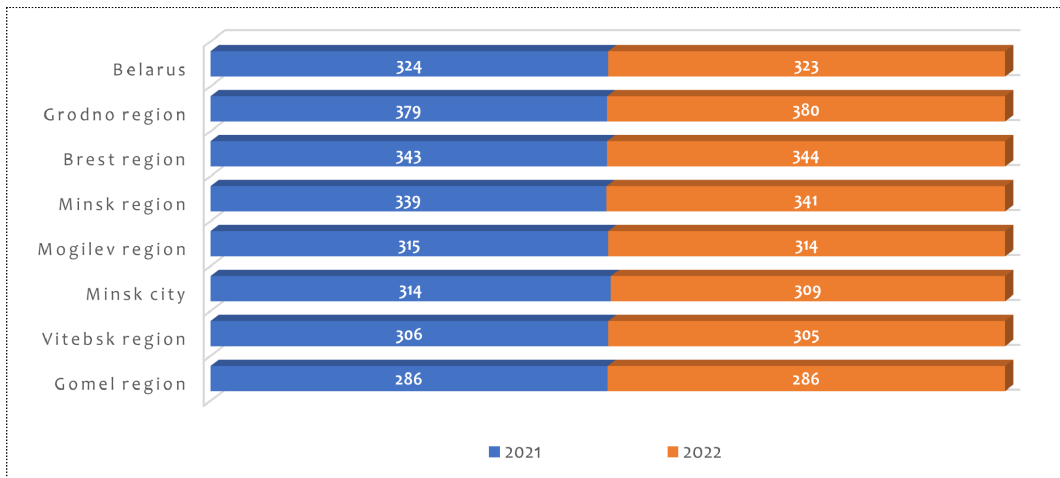
〈벨라루스 제약시장 금액기준 구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산(%)	52.6	51.9	53.7	53.5	50.2	50.0	52.0
수입산(%)	47.4	48.1	46.3	46.5	49.8	50.0	48.0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투자민영화청(NAIP)

- 벨라루스는 상용차와 트랙터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독일 상용차기업 MAN은 MAZ사와 합작으로 MAZ-MAN을 설립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중국 Geely는 합작투자자로 승용차 및 SUV를 현지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 전기차 생산도 검토 중
 - 2019년 전년대비 22% 성장했던 벨라루스 신차 판매 대수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2020년 52,768대(승용차 46,098대, 경상용차 5,738대)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으며, 2021년 46,837대(승용차 41,217대, 경상용차 5,620대)의 신차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함
 - 2022년 17,234대(승용차 14,843대, 경상용차 2,391대)로 전년 대비 36.8% 감소했으며, 2023년 1~8월 승용차 11,692대의 신차가 판매됨
 - * 판매 승용차 대부분(약 8,800대)이 벨-중 합작인 Geely 자동차이며, 기타 중국 수입차량(Haval, Cherry, JAC 등)을 포함할 경우 판매 승용차의 약 80% 이상이 중국 차량임

〈2022년 벨라루스 인구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민스크 무역관 재구성

- 앞서 언급했듯이 벨라루스는 IT 분야에서 CIS나 여타 동유럽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가 있으며, 특히 IT 아웃소싱 분야에서는 선도적 경쟁력 보유

- ICT는 벨라루스 전체 외국인 투자의 약 10%, 2022년 GDP의 6.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약 7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1,000여 개 ICT 기업에서 근무 중임
- 2021년 벨라루스의 ICT 서비스 수출은 전체 서비스 수출의 31.3%에 달하며, 2017년의 18.4% 대비 비중이 약 13% 증가
- 이밖에 식품, 기계, 광학, 가전 등도 투자 유망 분야로 꼽을 수 있음
- 벨라루스는 유제품, 육류, 감자, 아마 섬유, 사탕무 생산 분야에서 CIS 국가 중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로 수출 중임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가. 교역

▣ '23년 한국의 對벨라루스 수출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 전망

- 1992년 수교 후, 한-벨 양국 간 교역은 지난 30년간 3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21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최초로 1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함.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작다 보니 연도별로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벨라루스로 직접 수출하는 금액만 우리 관세청 통계상에 잡히고 있음

〈최근 7년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교역 현황〉

(단위: 천 US\$,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8월
수출	금 액	28,645	32,559	47,696	54,573	69,612	37,540	41,510
	증감률	0.6	13.7	46.5	14.4	27.6	△46.1	91.5
수입	금 액	44,613	44,769	55,934	40,885	82,434	14,257	3,664
	증감률	20.0	0.4	24.9	△26.9	101.6	△82.7	△69.2

자료: KITA 통계

- 2015년 약 1억 달러에 근접하던 교역 규모가 벨라루스의 경기 침체로 2016년 30.1%(9,397만 달러 → 6,563만 달러) 급감했으나, 2017년 11.6%, 2018년 5.6%으로 회복되었으며, 2019년에 34% 증가로 교역 규모 1억 달러를 넘어섬
- 2020년의 경우 수출은 늘었으나 칼륨비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 교역이 7.9%(9,546만 달러)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판,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와 함께 칼륨비료 수입이 급증하여 63%(1억 5,205만) 증가한 최대 교역액을 기록

-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인해 교역액이 1/3로 감소
 - 수출은 3,754만 달러로 -46%, 수입은 1,426만 달러로 -83%를 기록
- 2023년 8월 기준 對벨라루스 수출은 전년도 기저효과, 비수출제재 품목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5%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수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對벨라루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9.2% 감소하였으며, 특히 '22년에 이어 수입 제품의 약 70~80%를 차지하던 칼륨비료(1위)가 제재 품목으로 수입되지 않아 하락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7	농약및의약품 3,123,901 (6.0)	기계요소 3,072,837 (780.1)	자동차부품 2,914,246 (18.2)	합성수지 2,619,308 (25.2)	합성수지 2,538,348 (△27.0)
2018	고무제품 3,412,752 (30.3)	자동차 2,463,848 (5,006.9)	기타기계류 2,369,638 (116.6)	농약및의약품 2,335,049 (△25.3)	자동차부품 2,138,552 (△26.6)
2019	자동차 8,659,333 (251.5)	고무제품 5,752,608 (68.6)	자동차부품 3,971,194 (85.7)	의료용기기 3,159,726 (62.9)	계측제어분석기 2,476,669 (27.1)
2020	고무제품 13,957,408 (142.6)	자동차부품 7,393,102 (85.5)	자동차 4,644,033 (△46.4)	비누치약및화장품 2,922,014 (55.9)	농약및의약품 2,919,862 (32.6)
2021	자동차 11,700,461 (151.9)	고무제품 11,372,866 (△18.5)	자동차부품 10,498,441 (42.0)	철강판 5,448,625 (124.7)	의료용기기 3,016,992 (82.4)
2022	비누치약및화장품 5,226,013 (△46.1)	의료용기기 3,788,751 (25.6)	전자응용기기 3,325,272 (45.9)	자동차 2,952,212 (△74.8)	고무제품 2,724,174 (△76.0)
2023.1-8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9,987,070 (27,311.4)	비누치약및화장품 3,561,871 (11.7)	가정용회전기기 3,203,464 (925,756.6)	의료용기기 2,497,721 (2.5)	기타정밀화학제품 2,107,477 (171.30)

자료: KITA 통계 (MTI 3단위 기준)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입 품목 및 증감률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7	칼륨비료 34,946,897 (19.8)	반도체 4,304,614 (0.3)	기타직물 1,653,598 (26.7)	기타화학공업제품 980,644 (0.0)	광학기기 463,076 (△10.9)
2018	칼륨비료 33,709,201 (△3.5)	반도체 3,647,116 (△15.3)	기타직물 2,002,244 (21.1)	목재류 1,562,948 (4,121.9)	광학기기 606,226 (30.9)
2019	칼륨비료 47,237,248 (40.1)	반도체 3,295,099 (△9.7)	기타직물 1,676,314 (△16.3)	목재류 623,742 (△60.1)	의류 505,901 (182.7)
2020	칼륨비료 29,256,723 (△38.1)	반도체 3,751,951 (13.9)	기타직물 2,377,474 (41.8)	기타화학공업제품 953,077 (334.1)	목재류 717,747 (15.1)
2021	칼륨비료 65,501,860 (123.9)	반도체 5,842,298 (55.7)	기타정밀화학제품 3,399,795 (375.7)	기타화학공업제품 1,466,023 (53.8)	기타직물 1173226 (△50.7)
2022	반도체 4,585,303 (△21.5)	기타정밀화학제품 3,155,761 (△7.2)	기타직물 1,716,190 (46.3)	모피 808,750 (1,185.7)	기타섬유제품 522,586 (△38.2)
2023.1-8	기타정밀화학제품 1,272,195 (△45.7)	반도체 553,188 (△86.1)	기타섬유제품 361,198 (△30.8)	목재류 209,300 (△2.5)	광학기기 173,704 (△21.6)

자료: KITA 통계 (MTI 3단위 기준)

-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을 통해 벨라루스로 우회수출되는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로 벨라루스 관세청이 원산지 등을 따져본 결과,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규모는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벨 통계청에 의하면 對한국 수입은 '18년 1억 2,363만 달러, '19년 1억 4,159만 달러, '20년 1억 1,830만 달러, '21년 8,233만 달러, '22년 1~3월 1,522만 달러임

〈한국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HS 2단위 기준)〉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보일러/기계 24,516,900 (△2.7)	고무제품 17,588,200 (79.8)	운송기기/부품 14,030,800 (58.8)	의료/광학기기 12,960,600 (151.6)	플라스틱류 11,724,100 (6.2)
2019	보일러/기계 23,340,600 (△4.8)	고무제품 17,565,700 (△0.1)	의료/광학기기 17,424,900 (34.5)	플라스틱류 16,457,500 (40.4)	유기화학품 14,508,700 (45.5)
2020	유기화학품 18,902,100 (30.3)	보일러/기계 15,287,600 (△34.5)	플라스틱류 15,035,500 (△8.6)	의료/광학기기 13,731,600 (△21.2)	고무제품 12,891,200 (△26.6)
2021	보일러/기계 13,610,900 (△11.0)	의료/광학기기 12,667,700 (△7.8)	플라스틱류 8,490,000 (△43.5)	의약품 8,168,900 (49.3)	전자기기 6,994,300 (11.3)
2022 1~3	의료/광학기기 2,605,600 (117.3)	플라스틱류 1,957,700 (1.4)	유기화학품 1,351,300 (32.8)	전자기기 1,302,400 (△29.5)	보일러/기계 1,289,000 (△65.3)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참고로 벨 통계청에 의하면 對한국 수출은 '18년 766만 달러, '19년 719만 달러, '20년 921만 달러, '21년 1,053만 달러, '22년 1~3월 267만 달러임

〈한국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입 품목 및 증감률 (HS 2단위 기준)〉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전자기기 3,666,200 (△11.2)	유리/유리제품 1,597,400 (3.5)	의료/광학기기 911,900 (14.8)	철강 339,900 (55.1)	보일러/기계 196,800 (△38.9)
2019	전자기기 3,356,200 (△8.5)	유리/유리제품 1,669,400 (4.5)	의료/광학기기 675,600 (△25.9)	섬유/직물류 382,200 (161.8)	석재/시멘트류 210,500 (59.5)
2020	전자기기 3,604,700 (7.4)	유리/유리제품 1,950,600 (16.8)	기타 화학제품 1,668,400 (11,097.3)	의료/광학기기 546,800 (△19.1)	섬유/직물류 234,300 (450.0)
2021	전자기기 3,604,700 (7.4)	유리/유리제품 1,950,600 (16.8)	기타 화학제품 1,668,400 (11,097.3)	의료/광학기기 546,800 (△19.1)	섬유/직물류 234,300 (450.0)
2022 1~3	전자기기 1,216,400 (△5.1)	기타 화학제품 783,900 (137.9)	육류 등 조제품 250,300 (79.7)	낙농품 142,000 (-)	의료/광학기기 90,500 (△32.7)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22년 4월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실패사례 및 시사점

- 현지에서 가전, 핸드폰, 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인기는 높지만, 이들 제품은 벨라루스로 직수출되는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벨라루스로 유통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기업의 對벨라루스 수출, 특히 직수출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 또한 다양함. 그러나 수출금액 측면에서 소규모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제재로 제재 관련 수출입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향후 벨라루스 정부의 서방 수입대체산업 육성,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동물의약품 사례

- 동물 백신 등 동물 약품 종류의 경우 러시아(33%)를 중심으로 EU, 미국에서 주로 동물 백신 등을 수입해왔으나, 러-우 사태 이후 물류 애로,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 물량 부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및 수출 증가 추세

- 경제제재에 따른 EU로의 주요 항공로 폐쇄로 출장 시 장시간이 소요(직항 부재, 1~2회 경우 필요)됨에 따라 어려운 직접 방문보다 최근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상담 집중 활용이 효율적
 -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수출 성공/실패 사례를 특정하기에는 규모 면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벨라루스는 전 지역이 우리나라 외교부 지정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
 -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 :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온라인 사절단 및 화상상담 활용 사례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사절단(12개 사) 화상상담 및 후속상담 수행(5~6월)을 통해 화장품, K-pop 음반 등 2개 사 초도물량 수출, 5개 사의 긴급 지사화 추진을 통해 성과 창출 노력

우리 정부의 對벨라루스 수출 통제 동참에 따른 유의사항

- 2022년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對러 제재 동참을 선언
 - 국제사회와 유사 수준의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1)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강화, 2)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제한, 3)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등 추진
- 2022년3월7일 정부는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 거래자 (국방부 등 2개) 지정 추가 시행,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것을 발표
 - 우리 기업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여부 확인 후 수출 필요
 -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확인 및 해당 시 상황허가 신청
 - 美 상무부, EU 집행위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및 사업체 등재(Entity List) 확인 필수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 금융 지원 시행 중

- ① 분쟁지역 진출 기업, ② '21년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예정 기업, ③ '21년 이후 분쟁지역에서 수입·구매 예정 기업, ④ 기타 연관 피해기업

• 2023년4월7일 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확대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57개 → 고시 시행 후 798개)
- 고시 시행 이후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 판단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나. 투자

▣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투자 진출 현황 및 성공 사례

- 2023년 기준 벨라루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4개 사이며,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대기업 2개사와 금청약품 대표사무소, 제이코멕스 현지법인 등임
 - * SK하이닉스는 R&D 법인으로, 나머지는 현지 영업을 전담하는 대표사무소 및 법인 형태로 활동
- SK하이닉스는 벨라루스 현지의 IT 기업을 인수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데, 다른 투자진출 기업과는 다소 독특한 형태로 투자 진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가 강해지자 SK하이닉스는 현지 사업 활동 축소 중
 - * SK하이닉스, 벨 IT기업 Softeq社의 펌웨어 사업부 인수합병(1천만 달러 규모, 2014.06)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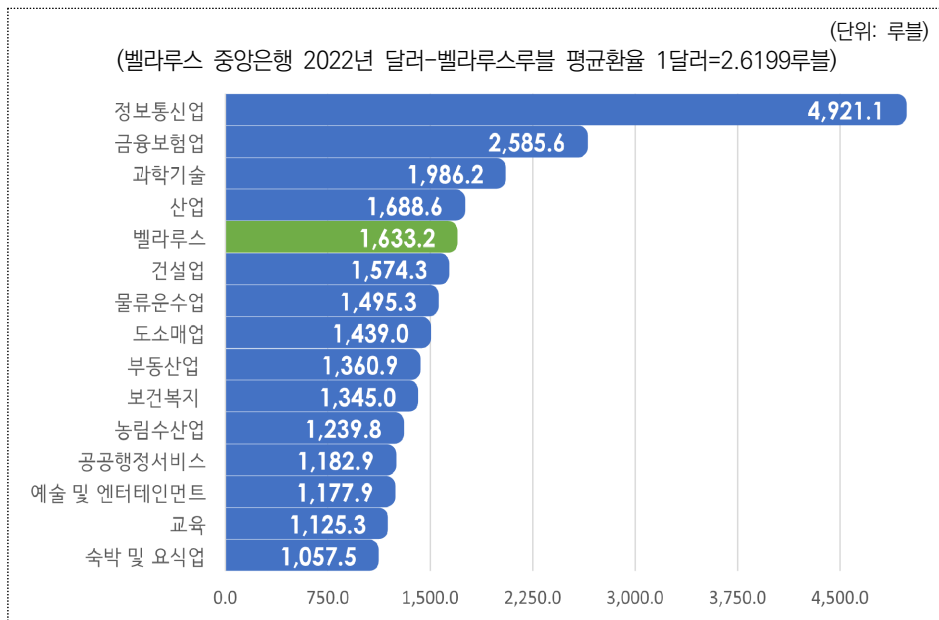
〈한국의 대 벨라루스 투자 현황(1990.01-2023.06)〉

구분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천 달러)
2014	정보통신업	1	14,234
2018	정보통신업	1	8
2019	제조업	1	10
~ 2023	—	0	—
합계		3	14,2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3년 6월말 기준)

- 벨라루스를 한국상품의 수출 시장으로만 보기보다 EAEU, EU 등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저임금·고효율의 투자 진출 대상으로 검토 필요
 - 특히 중소기업 중엔 원천기술 개발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인건비 대비 소위 가성비 좋은 고급인력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벨라루스를 투자 대상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벨라루스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1,633.2루블(약 623.38달러)이었으며, 제조업 평균임금은 1,688.6루블(약 644.53달러), 과학기술 분야는 1,986.2루블(약 746.67달러), ICT 분야는 4,921.1루블(약 1,878.35달러)였음

〈2022년 벨라루스 경제 분야별 월평균 명목급여〉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기초과학이 매우 발달했으며, 화학·물리·바이오·ICT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연구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
 - 급여 수준은 지역·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0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며, Great Stone 산업단지, Hi-Tech Park 등에 입주하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고급 인력 채용 가능
- 2023년 8월 기준 벨라루스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1,962.4루블(약 622달러)로 루블 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하였으나, 달러 환산 기준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2023년 8월 벨라루스 주별 월평균 명목급여(루블 기준)〉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투자 진출 고려 시, 입주 후보 산업단지 현황

① Hi-Tech Park

- 기관 개요

기관 명칭	(노문) Парк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영문) Hi-Tech Park
홈페이지	https://park.by/en/
설립년도	2005년
기관 대표	Alexander Bazanov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기관 주소	Kuprevicha, 1/1, Minsk, Republic of Belarus

- 설립 근거
 - 2005년 9월 공표된「Hi-Tech Park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 12호」에 근거하여 설립
 - * HTP 운영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조직(HTP administration)을 구성

- 설립 목적
 - ICT 분야를 벨라루스 신성장 동력 및 수출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첨단산업단지인 HTP 설립
 - * 설립 초기에는 첨단산업 R&D센터 유치 등 입주기업 선정에 있어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영
 - 2014년 11월 대통령령 4호에 따라, 정보보안업체, 데이터관리센터 등 IT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범위 확대
 - * 외국기업에 IT 아웃소싱 서비스 수출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 지원

- 현황
 - 2006년 최초 입주 이후 2022년 기준 ICT 관련 1,018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40% 이상이 외국의 투자 또는 합작기업 활동 중
 - * 입주기업의 생산제품/서비스 가운데 90%는 미국, 유럽 등 67개국으로 수출 목적
 - Hi-Tech Park IT 전문가들의 평균 임금은 약 2,000달러 이상이며, 2022년 기준 60,000명 이상의 ICT 전문인력이 근무 중
 - 2021년 HTP 입주기업들의 대외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20억 달러, 2022년에 전년 대비 16% 감소한 270억 달러 기록

- 입주 혜택
 - 법인세·부동산세·부가세 면제, 근로자 소득세 9% 감면, 전체 외환소득의 20%까지 외환보유 가능
 - * 벨라루스는 외환 부족 국가로 기업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엄격히 통제

-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 현황 : SK하이닉스 일부가 입주했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Hi-Tech Park에서 철수

② Great Stone

- 기관 개요

기관 명칭	(노문)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Великий камень' (영문) Industrial Park 'Great Stone'
홈페이지	https://en.industrialpark.by/
설립 년도	2016년 12월 28일 완공식 ('10.10월 벨-중 간 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기관 대표	Alexander Yaroshenko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단지 위치	민스크 국제공항 인근 5km 지점, 민스크 시에서 25km 지점

- 설립 근거

- 동 산업단지는 중-싱가포르 산업단지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18일 체결된 '벨-중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

- 설립 목적

- 외투 유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을 빌어 조성 중인 동 산업단지는 벨라루스 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 * 2016년 12월 1차 완공 이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단지 건설 중, 총면적 91.5km²
- 첨단기술 및 혁신 제품 생산기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 산업단지에서 제조된 생산 제품의 수출 확대가 발전 방향
 - * 유치 타깃 산업 : 기계공학, 전자통신, 화학, 바이오, 소재개발, 물류, 제약, R&D, 의료기기 및 서비스, E-commerce, 빅데이터 저장 및 처리, 사회문화 이벤트 등 12개 산업 중심

- 현황

- 동 산업단지는 벨-중 간 합작이지만, 중국 이외 외국기업의 입주도 가능
- 2023년 7월 기준 입주기업은 15개국 111개 사이며, 주로 기계·정보통신·목재가공·BT 기업
- 벨 정부는 2017년 5월,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16호를 승인하여 외투 유치 독려 중

- 입주 혜택

- 최초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부동산세·토지세 면제, 장비·원부자재 관세 면제
- 10년 지난 시점부터 이후 10년간 법인세·부동산세·토지세 50% 감면, 장비·원부자재 관세는 계속 면제

-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 현황

- 현재 진출 한국 기업 없음

③ Bremino Orsha

- 기관 개요

기관 명칭	(노문) 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Бремино-Орша' (영문) 'Bremino Orsha' Special economic zone
홈페이지	http://www.bremino-sez.by/en/
설립년도	2019년 6월 21일
기관 대표	Sergei Kupreev (The Director of "Bremino group" company)
기관 주소	st. Factory 1K, Bolbasovo, Orsha district, Vitebsk region, Republic of Belarus

- 설립 근거

- 2019.3.21 대통령령 제106호 Bremino-Orsha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령

- 설립 목적

- 벨라루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유통 특구를 오르샤 지역에 설립
- 입주가능 제조업: 가전·전자, 의약품, 식품, 자동차부품, 화장품, 일반소비재

- 현황

- 동 경제특구는 유라시아횡단철도 선상 및 E30(베를린-모스크바)/E95(헬싱키-오데사) 고속도로의 교차로상에 위치하며, 인근에 Orsha 공항 위치
- 동 경제특구의 관리기관은 LLC Bremino group과 Vitebsk 주정부임
- 현재 입주기업은 4개 사이며, 주로 기계·정보통신·목재가공·BT 기업

- 입주 혜택

- 입주 후 9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20년간 부동산세 면제, 장비·원부자재 부가세 면제

-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 현황 : 현재 진출 기업 없음

④ 각 지자체별 자유경제구역(FEZ)

- 브레스트 FEZ

- 홈페이지: <https://fezbrest.com/en/>

- 비젱스크 FEZ

- 홈페이지: <http://www.fez-vitebsk.com/en/>

- 고멜-Raton FEZ
 - 홈페이지: <http://gomelraton.com/en/>
- 그로드노 Invest FEZ
 - 홈페이지: <https://grodnoinvest.by/en/>
- 민스크 FEZ
 - 홈페이지: <https://www.fezminsk.by/en/>
- 모길료프 FEZ
 - 홈페이지: <https://www.fezmogilev.by/en/>

다. 협력 유망 분야

▣ 한-벨라루스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ICT 분야 경제협력 기반 조성

- 벨라루스는 CIS 국가 중 ICT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이며, 우수한 IT 인적자원을 육성/보유하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높은 편임
 -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기술 강국인 벨라루스와 과학기술, ICT 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공동위를 구성하고 협력을 확대 중이었으나 코로나19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인해 교류 중단중
 - 국가 연구개발(R&D) 정보 종합관리체계(NTIS),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벨라루스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심이 높음

- ▶ 한-벨 과학기술공동위 및 과학기술포럼 개최
 - 양국 2004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2008년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 제3차 과학기술공동위와 제6차 과학기술포럼 민스크 개최(2019.4.10)
 - * 제4차 한-벨 과학기술공동위 및 제7차 한-벨 과학기술포럼 개최 연기
- ▶ 한-벨 IT 협력센터(ITCC) 가동
 - ITCC가 민스크에서 개소('17.3.28)되었으며, 우리측은 벨측과 ITCC 공동 프로젝트 수행(△전자무역시스템 교육, △국가기록물관리, △국가보안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 * 과기정통부는 벨라루스에 IT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협력 프로젝트 수행('17~'19, 100만 달러 지원)
- ▶ 한-벨 정보접근센터 운영
 - 우리 정보화진흥원이 IT 기자재를 지원하고 벨라루스 측이 부지를 제공, 민스크 소재 Hi-Tech Park 내 '14년 9월 한-벨 정보접근센터 개소
 - * 총 400평 규모(300평은 IT 교육장 및 세미나실로 활용, 100평은 '한국 문화 및 IT 체험관'을 설치·개방)

▣ 한-벨 KSP(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경제협력 수행 (러-우 사태 이후 중단 중)

- 벨라루스 경제부와 벨라루스 국가 경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KSP사업 추진
 - * '17.04.26 한-벨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17년 10월과 '18년 5월 벨 정책관리자 방한초청
 - '18~'19년 한-벨 KSP로 KDI에서 '벨라루스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 사업을 완료
 - '20~'21년과 '21~'22년에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 수립' 사업을 추진
 - * 벨라루스 국가 디지털 전환 실행전략(18/19)의 경우 2019년 9월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대표 성과로 발표

- 벨라루스 관세위원회와도 전자정부·전자무역과 관련한 KSP사업 추진
 - KOTRA가 '20~'21년 '벨라루스 관세위원회 업무효율화 증진방안' 사업을 완료했으며, '21~'22년 '벨라루스 세관심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행방안' 추진

Chapter



진출전략



※ 벨라루스 내 한국상품 이미지는 한류, K-Beauty 등으로 긍정적이며, 벨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 산업현대화 추진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및 원부자재 수요가 증가 추세 중. '23년 서방의 경제 제재 강화로 인한 거래선 전환 등 교역국 다각화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영기업 비중이 높아 공공 조달 입찰 건수가 증가세에 있으며, 참여 조건 완화 분위기에 따른 조달시장 진출기회 검토 필요

1 PEST 분석

<p>P 정치정책 (Polit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루카셴코 대통령이 구소련 정치·경제체제를 기반으로 '23년 기준 30년째 집권 중 → '25년 대선 승리 시 40년간 집권 가능 •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통제 강화 및 안보 활동 관련법 개정(7월) •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이행 중단 법안 승인(폴란드, 체코대상), 여권의 해외 발급갱신 금지법 발효(9월) • 벨 관세청, 개인용도 물품 무관세 육로 국경 반입 한도 축소(10월)
<p>E 경제 (Econom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GDP growth) : 벨 정부는 3.8%의 긍정적 전망을 하나, IMF, WB 등 국제기구들은 -1.0% ~ 0.7% 수준으로 보수적 전망 • 환율이 '23년 들어 약세 전환되어 소폭 평가절하 추세(2.50→2.92루블) • '23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 물가 관리 정책 영향으로 '22년 15.2% 대비 둔화 추세 • '23년 상반기 월평균 명목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7.4% 증가에 그침 • 벨 연금 상황(5%)에 관한 대통령령 서명(8월)
<p>S 사회문화 (Soc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과 기자재(임플란트) 시장 등 실버산업 성장 • 인터넷 플랫폼 발달로 전자상거래 급성장 중 • 여타 CIS 국가와 유사하게 한류, K-푸드 등 인기 • IT산업은 벨라루스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이자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임 (IT 업계 급여가 가장 높은 편) * 러-우 사태 이후 젊은 IT 인력의 해외 유출 가속 • 인구 감소 및 여초 현상 심화
<p>T 기술 (Technolog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S 내 IT 강국답게 자국산 노트북, 전기차 등 제작 및 부품 현지화 노력 추세 (부품의 조립 생산에서 시작하여 발전 중) • 디지털 경제발전에 관심이 높으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 게임 산업 발달로 관련 인력 풍부 • 자국 가전기업(ATLANT) 보유로 중저가 브랜드 보급 활성화

〈벨라루스 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등 영향으로 한국산에 대한 높은 신뢰도 • 한국 제품의 높은 품질과 유럽·미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기존 거래선 전환 유도 기회 • 공공조달의 경우,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부터 장시간·고비용인 물류/운송 • 러시아 대비 작은 내수시장 규모(인구 920만) • 만성적 외화 부족으로 구매력 다소 미미 • 정부 입찰을 통한 구매 비중 높은 시장인 데 비해 공공 조달 입찰절차가 비교적 복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간 경제교류 활성화 • 벨 정부·기업의 산업 인프라 개선 의지 및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교역국 다각화 추세 • 물류 애로로 인한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조달 참여 조건 일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의 對벨라루스 제재뿐 아니라 對러 제재 장기화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경제성장 둔화 •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 및 러/중 기업의 벨 수출·투자 진출 가속 • 경기둔화환율 평가절하 등에 따른 바이어 및 소비자 구매력 약화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K-Beauty에 민감한 여성층 소비 공략 • 新수요를 겨냥한 고품질·유망 소비재 시장 발굴 	유망 소비재·최종재 시장점유율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시장 참여 조건 완화 활용 • 의약품/의료기기/설비 등 우리 진출 기회 점증 	공공조달 시장진출 선도기업 육성지원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 정부 자국 산업 육성 및 산업현대화 진출 노력 • 서방 경제제재로 교역국 다각화, 거래선 전환유도 	현대화 수요에 맞춘 중간재(소부장) 진출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투자 진출 기반 구축 • 물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직수출 확대 	물류 경쟁력 확보 및 투자 진출 기반 조성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화장품·소비재·최종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전시회 홍보관 운영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 체인 입점 추진 • 현지 방문 애로 해소를 위한 유망 소비재 품목 화상 상담회 확대
기계·설비·화학 소부장·중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대화로 노후 설비 교체 수요 다대, 관련 인콰이어리 중점 발굴 • 자국 산업 육성으로 중간재 수요 증가, 서방 제재 관련 거래선 전환 기회 포착
의약품·의료기기 동물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료기기 다수 수입 의존, K-메디컬 인지도 활용 시장 확대 • 국영농장 동물 백신·사료첨가제 등 우리 기업 조달 납품 가능성 다대
EAEU 역내 경제협력 강화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소비재·최종재 품목 특화 마케팅사업 추진 * 산업현대화 관련 소부장·중간재 新먹거리 발굴 * 공공조달 시장진출 선도기업 및 유망 품목 발굴

3-1. 소비심리 개선,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따른 유망 소비재 수출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9년부터 소득 증가 및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화장품 등 한국의 주요 소비재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으나, '20년 코로나19 및 벨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수입산 소비재 가격이 대폭 상승
- '21년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수입이 다시 증가세에 있었으나, '22년 러-우 사태 영향으로 큰 폭 감소 후 '23년의 경우 경제 및 수입 안정화 추세
- 벨라루스를 기반으로 EAEU 소비시장 공략을 통해,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의 밑거름으로 활용
* 벨 화장품 수입시장 한국 순위: ('17) 31위 → ('19) 10위 → ('21) 6위, 점유율(5%) 상승 추세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류·교역 애로로 주요 소비재 등에 대한 대체 공급선 발굴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발달 등으로 소비심리 개선
 - 수입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편이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은 다대, 물류 및 가격경쟁력 강화가 관건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소비재) 화장품·소형가전·팬시류·식품 등 벨라루스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상대적 소량 주문으로 러시아를 통한 우회수입이 많음 → 러시아에서 마진이 붙어 수입되므로 가격상승 → 한국산 판매저조 (벨라루스 바이어는 직수입 희망)
 - 기존 한국 제품 우회수입 바이어-국내기업 직접거래 연결로 직수출화 확대
- (화상상담 확대 및 관련 전시회 홍보) 러-우 사태 이후 현지 방문 애로로 소비재 중심 바이어들과의 화상상담 확대 및 현지 전시회 등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 필요
 - 최근 몇 년 체인스토어 내 한국산 화장품 전문 코너(매대) 설치가 증가하였으며, OEM을 통한 시장 공략 등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 상승
 - 한국산 소형가전 및 기타 소비재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나, 물류 애로 해결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

- (인플루언서 활용 제품 홍보) 식품과 같이 현지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의 경우, 한류 아이টে을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
* 한류 아이টে 업로드 중인 현지 유튜버(Anna Shi/한국 유학 경험/구독자:2.8만명) 등 활용 가능

3-2. 수입선 다각화 및 수입대체 산업육성 관련 틈새 시장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舊소련권 국가 EAEU 창설로 EU와의 무역분쟁 심화, EAEU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 * EAEU 출범 후 EAEU 회원국 對EU 수입 대폭 감소, EAEU 역내 탈 달러화 가속화로 회원국간 러시아 루블을 통한 상호 결제 비중이 2015년 68%에서 2022년 75%로 증가
- 자국 산업 육성 및 산업현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관련 장비 교체 및 원부자재 포함 소부장 수요 다대
 - * 벨라루스 기계설비 노후화율은 약 78%로, 노후화 제조설비 교체는 벨 정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
- '20년 대선, '22년 러-우 사태 이후 EU·미국의 지속적인 對벨라루스 경제제재 강화로 서방과 관계 악화
 - * 이로 인한 기존 對서방 수입품목의 거래선 전환 움직임 및 수입대체 산업육성 가속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AEU 국가간 공동 시장 형성 및 의존도 가속화
 - '23~'24년 회원국 협의회 활성화로 EAEU 경제발전 공동 전략* 수립 추진 및 계획
 - * EAEU : '15년 1월 출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 기술 규제 및 공동 표준, 관세 정책, 비관세 규제, 공공 조달 분야 등 협력 확대
 - Made in EAEU 확대를 위해 회원국간 수입 대체 산업 협력 프로젝트 증대
- 러시아 주도로 벨라루스를 포함한 EAEU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AEU 회원국 내 자국 기업 생산력 및 기존 수입품 대체 여력은 여전히 부족
 - EAEU 출범 이후 회원국 5개국의 對EU 수입은 대폭 감소되어서,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제품들의 대체재나 대체 공급처 발굴 필요
- 보호무역 일환으로 자국 산업 육성에 노력 중이나, 기존 설비 노후화가 심해 산업인프라 현대화가 절실
 - 78%에 육박하는 노후 설비 교체와 자국제조업 육성에 따른 소부장 수요 다대
 - 이런 상황 속에 '20년 대선과 '22년 러-우 사태 이후 EU/미국의 對벨라루스 경제제재 강화는 기존 서방 수입 품목들의 거래선 변경 움직임 초래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거래선 다변화 유도) 기존 EU·미국 수입 제품의 거래선 복수화를 유도
 - 기존 EU·미국과 거래하던 바이어의 거래선 다변화 수요 파악
 - * EU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유망 품목 선별 후 진출
- (신규 인콰이어리 발굴) 현지 제조기업 대상 소부장·중간재 신규수요 발굴
 - 현지 제조사·벤더 대상 노후 설비 교체·보수 및 신규 원부자재 수요 발굴
 - 관련 산업 현지 협회 및 오프라인 전시회 참관 등을 통한 인콰이어리 수집
 - * 원부자재 경우 현지 제조사에 납품 시 장기적인 수요 기대. 중고 장비 경우 수출 준비 서류 용이
- (진출 유망 품목) 기계류, 설비, 중고 장비, 화학제품 등 원부자재, 신소재 등
 - 현지 제조사들의 원부자재 구매처 다각화 움직임이 뚜렷하며, 실제로 무역관으로 관련 인콰이어리 문의 증가
 - * (사례) 오븐렌지 제조용 알루미늄 강판, 동물 백신 원료, 사료첨가제 염화콜린, 식품 원료 올리고당, 화장품 원료 히알루론산, 세정제용 증점제 카보머, 금형기계, CNC 터렛 선반, 타이어 제조용 금형 등
 - * 경제제재에 따른 상황 허가 품목 해당 여부 확인 필수

3-3. EAEU 경제협력 확대 활용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 공략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벨라루스는 관(官)이 시장을 견인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제조업 다수인 약 70%가 국영기업이며, 이로 인해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벨 조달시장은 연평균 36억 달러로 총 GDP의 6%를 차지하며, 매년 수행되는 입찰 건수 증가세
- 벨라루스의 경우, 만성적인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납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
 - *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 EU·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 진출 확대 필요
 - *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설비 등 EAEU 내 자국 기업 경쟁력 미약 분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가세이며, 서방의 경제제재로 거래선 전환 등 교역국 다각화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벨라루스는 소비에트 유산으로 관(官)이 시장을 견인하는 계획경제 시스템

- 약 70%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국영기업이며, 대부분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 금액 기준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으며, 중소기업 입찰 건수가 증가세를 보임
 - * 벨 조달시장은 연평균 36억 달러로 총 GDP의 6%를 차지하며, 매년 수행되는 입찰 건수 증가세
 - 벨 정부의 공공조달 절차 투명화 및 부패 방지 노력 강화('22년)와 함께 공공조달 참여 조건 완화('23년)로 한국기업 참여 기회 증가
-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韓-EAEU FTA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향후 러-우 사태의 원만한 해결 시 재추진될 FTA 체결에 대비해 EAEU 시장 내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진출 방안 검토 필요
 - EAEU와 메가 FTA 체결에 대비, CIS 핵심시장을 일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이 필요하며, 벨라루스를 통한 EAEU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 가능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EAEU 경제협력 확대 적극 활용) 기존 EU 수입제품 시장의 틈새시장 공략
 - 러-우 사태 이후 강화되고 있는 EAEU 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활용하여 한국의 수출 유망 품목 진출 루트 확장 필요
 - * EU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유망 품목 선별 후 진출
 - 주요 발주처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이들을 통한 선제적인 수요발굴이 중요
 - 의약품(완제품/원료), 의료기기, 동물 백신(완제품/원료), 사료첨가제, 산업 중간재 등 EAEU 내 벨라루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미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EAEU 공공조달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 추진 필요
 - * EAEU 주요국이 자국 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단기간 내 해소 불가
- (진출 유망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 백신/약품, 사료첨가제, 산업 중간재 등
 - 소비자·기계류 등에 비해 의약품·의료기기는 초기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반면에,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인 관계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비교적 우수한 편임
 - * 벨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에 의존, K-방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분야는 좋은 이미지 구축
 - 벨라루스는 정부 재정 여건이 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
 - * (벨라루스 보건부) 다국적기업에서 공급받던 고가 전문의약품 구입하기에는 예산 부족 → 국제적으로 품질이 검증되었고, 비교적 저렴한 한국산 의약품 수급 희망
 - * (벨라루스 농축산부) 현지 생산이 되지 않는 백신/동물약품 및 현지 생산 중인 동물약품의 원료 구매희망, 특히 원료의 경우 완제품에 비해 수입 시 요구되는 서류 요건이 간단해 초기진출 용이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의약품 (백신, 항생제, 전문 의약품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관련, 기존 유럽산 고가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전문의약품 가운데 백신, 항암제 등 일부 한국산 의약품이 소개되면서, 한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조달 대행 기관인 '벨파르마피야' 인터뷰 결과,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고가 전문의약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전문의약품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미국·러시아·인도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벨라루스 정부 및 국공립병원에서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보건복지부 및 현지 국공립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목록을 확보한 후, 우리 의약품 제조기업 또는 도매상이 공급 가능한 제품에 대해 현지 진출 실시
품목명 2		
화장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에서 한국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세이며, '20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92%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는 별도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커지고 있음. 또한 한국제품 품질에 대해 만족하여 기사용자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마스크팩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이 시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한국으로부터 직수입 제품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제품이 벨라루스로 우회 수입되고 있는 물량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됨 * 벨 화장품 수입시장 내 한국 순위: ('17) 12위 → ('18) 8위 → ('19) 7위 → ('20) 4위, 점유율 입지 굳히기 필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산, 유럽산, 자국산 등이 시장에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유럽산 화장품은 메이크업 중심이며, 벨라루스산 제품은 중산층 이하에서 주로 소비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상들이 대부분 영세하므로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러시아를 통해 간접수출보다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직 수출을 통한 진출을 하는 편이 나옴. 대량 주문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꾸준한 소량주문 대응 필요함 * 한국 화장품 인지도를 활용하며 샴푸 및 기타 목욕용품, 뷰티 관련 제품들도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음
품목명 3		
산업 기계류 전반 (공구, 부품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내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이 지속 추진 중이며, 산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 점증 * 대형 기계류 이외에도 중소형 식품포장기계, 절삭기기 등 공구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내 제조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 생산 제품의 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제품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노후화된 생산장비의 문제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 * 최근 자동차·기계류 제조사 등을 중심으로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는데, 무역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분석해 보면, 금속 가공 기계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한 절삭/가공기술을 요하는 공구, 기계에 대한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고, 바이어들 인터뷰 결과, 이전에 시멘트 절삭기계만을 취급하던 바이어도 금속절삭기구를 찾는 등 시장 내 수요 감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산 기계/설비 수요는 높으나, 러-우 사태로 인한 대체 기계/설비 수요 증가, 중국산의 경우 품질 경쟁력이 낮으나 대체재 부족으로 수요 증가 추세 * 그러나, 품질 대비 가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산 기계/설비가 우수하다는 것을 수입자들도 인지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현지 제조업체 대부분이 국영기업인 관계로, 입찰 참여 또는 입찰 참가 벤더를 통한 납품이 불가피함 * 공공조달에 전문화된 현지 벤더 중심으로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출방안임
품목명 4		
자동차 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내 한국산 자동차 부품 교체 시기 도래에 따라, 향후에도 부품 수입 수요 지속 증가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승용차 시장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한국산 차량 유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HS 8708 제품군 외 차량용 필름, 차량용 전구 등도 수요가 꾸준하며, OEM 구매에 대한 수요도 상존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러시아·독일·터키·폴란드·일본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구사 필요
품목명 5		
타이어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간 한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넥센·한국타이어)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한국산 제품이 시장 3위 차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중국·세르비아·헝가리·우크라이나 등이 경쟁국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수입 제품의 한국궤 직수출 지원 고려
품목명 6		
의료 기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대 초중반에 구매했던 장비의 교체 시기 도래 * 코로나 진단키트 및 혈액 분석 등 분석 장비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세에 있음. * 사립병원 증가에 따라, 의료장비 수요 지속 * 2020년 對한국 수입 9018류 15.2%, 9027류 32.4%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초정밀 진단기기보다 사립병원에서 초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기기 중심으로 수요 증대 * 진단기기, 분석 장비에 대한 수요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과거 구매했던 장비(영상진단기기) 등의 교체 수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진단기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독일, 중국, 일본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품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의 진출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됨. 국영병원 납품 시 입찰 참가 필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현지에 의료기기 수입기업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수입 규모가 비교적 작음 * 기존에 독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던 바이어 대상 한국제품 소개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함

품목명 7		
임플란트, 치과기자재	선정사유	* 2020년 한국산 임플란트가 수입시장 1위 (38.6%) 점유
	시장동향	*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임플란트는 2018년 이후 한국산이 1위. 자재류는 일본·독일산이 50% 점유
	경쟁동향	* 스위스·이스라엘·일본·독일·미국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 한국산 임플란트가 시장을 넓혀감에 따라, 임플란트뿐 아니라 다양한 치과기기/부자재 (3D 덴탈스캐너, 브라켓, 기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기회 활용
품목명 8		
동물용백신, 동물사료 첨가제	선정사유	* 동물용 백신·가축용 비타민·어분 등 인과이어리 수요 증가
	시장동향	* 벨라루스는 축산 가축 수가 풍부하며, 세계 10대 육류 수출국으로서 가축 백신이나 가축사료 첨가제의 수요가 다대 * 세계 4위 유제품 수출국, 벨 식품 수출 60%가 육류/유제품 * 상당수 농업기업 및 농장이 국영으로 조달을 통해 구매
	경쟁동향	* 러시아·미국·유럽·중국·폴란드·세르비아 등이 경쟁국
	진출방안	* 국영농장 대상 동물 백신·사료첨가제 등 조달 납품 추진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한국기업에 대한 좋은 평판 및 벨 정부의 인프라 개발 의지
	시장동향	인프라 개발 및 플랜트 건설 수요 지속 증가 예상
	경쟁동향	러시아, 터키, 중국 업체와 경쟁
	진출방안	현지 정부기관 프로젝트 발주 정보 입수 시 즉시 국내유관기관 및 기업에 전파, 관련 전시회 참가
품목명 2		
SW	선정사유	한국은 전자정부 및 전자통관 시스템 분야 강점이 있으며, 기타 의료 진단 시스템, 병원 시스템 분야에도 경쟁력 보유
	시장동향	벨라루스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 시스템 및 의료현대화를 위한 암 진단 프로그램, 포괄수가제 시스템 등 수요
	경쟁동향	스칸디나비아, 일본, 미국, 벨라루스 업체와 경쟁
	진출방안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한 SW 현지 수출 겨냥 벨라루스 ICT 분야 경쟁력은 세계적인, 기술협력 고려 가능
품목명 3		
(의료)관광	선정사유	(단, 경제제재로 인한 이동 제약이 해소된다는 가정하)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좋은 평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의료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증가
	경쟁동향	이스라엘, 터키, 태국, 독일, 이란 등과 경쟁 장애요인: 한-벨 직항 부재, 벨라루스인 방한 시 비자 필요
	진출방안	벨라루스 병원 및 여행사와 협력 벨라루스 여행·관광박람회 참가

▣ 벨라루스 의료시장 진출 확대 사업

- 2024 벨라루스 의료전시회(Healthcare of Belarus) 한국제품 홍보부스 운영
 - 시기/장소: 4월, 벨라루스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전시장
 - 대상: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메디컬 기업 10~15개 사
 - 내용: 국내기업 제품·카달로그 전시·홍보 및 바이어와 수출상담 대행
- 2024 벨라루스 덴탈전시회(BelarusDent) 한국제품 홍보부스 운영
 - 시기/장소: 10월, 벨라루스 민스크 BelExpo 전시장
 - 대상: 덴탈·치과기자재 등 관련 기업 10~15개사
 - 내용: 국내기업 제품·카달로그 전시·홍보 및 바이어와 수출상담 대행

▣ 벨라루스 ICT시장 진출 확대 사업

- 2024 벨라루스 정보통신박람회(TIBO) 한국제품 홍보부스 운영
 - 시기/장소: 5월, 벨라루스 민스크 Arena 전시장
 - 대상: ICT·정보통신 등 관련 기업 10~15개 사
 - 내용: 국내기업 제품·카달로그 전시·홍보 및 바이어와 수출상담 대행

▣ 벨라루스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사업

- 2024 러시아-CIS 뷰티 & 생활소비재 무역사절단
 - 시기/장소: 4월, 온라인 수출상담회
 - 대상: 미용뷰티&생활소비재 등 관련 기업 10~15개 사
- 유통체인 소비재 입점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하반기, 벨라루스 민스크 상담장 또는 온라인
 - 대상: 현지 유통체인 진출 관심 소비재 기업 10개 사 내외
 - 내용: 현지 유통체인 및 유력 벤더 대상 입점 1:1 상담회 및 특판전 개최

▣ 벨라루스 산업기술협력 확대 사업

- 한-벨라루스 산업기술협력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하반기, 벨라루스 민스크 상담장 또는 온라인
 - 대상: 의약품·의료기기·산업설비·ICT시스템·원부자재 등 관련 기업 10~15개사
 - 내용: 현지기업과 1:1 기술협력·수출상담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선거 일정
 - 2024년 2월 하원 의원 및 지방 의원 선출 총선 예정
 - * 하원 의원 총선 2019년 11월17일 실시(110석), 임기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 2024년 4월 전벨라루스인민의회(All-Belarusian People's Assembly) 대의원 선거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년 예산안 확정	2023.12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 신발/의류/원단/재봉/세탁 박람회 Everything for Sewing Industry 2024	2024.2.15-2.15	민스크 Arena 전시장
2024 벨라루스 조명/전기 전시회 Electrotech, Light, Electronics 2024	2024.3.12-3.14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2024 벨라루스 건설중장비 박람회 BUDEXPO 2024	2024.3.27-3.29	민스크 BelExpo 전시장
2024 벨라루스 의료 전시회 BelarusMedica 2024	2023.5.28-5.31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2024 벨라루스 요식/유통업 박람회 HoReCa. RetailTech 2024	2024.4.2.-4.5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2024 벨라루스 기계 전시회 Mechanical Engineering Belarus 2024	2024.4.9-4.12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2024 벨라루스 정보통신 박람회 TIBO 2024	2024.4.23.-4.26	민스크 Arena 전시장
2024 벨라루스 농업/식품 박람회 Belagro, Belfarm, Food Industry 2024	2024.6.4-6.9	Great Stone 산업단지 민스크 인근
2024 벨라루스 민스크 교통물류 전시회 Belarusian Transport Week 2024	2024.10.15.-10.18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2024 벨라루스 민스크 에너지 전시회 EnergyExpo 2024	2024.10.15.-10.18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2024 벨라루스 덴탈 전시회 BelarusDent 2024	2024.10.30.-11.1	민스크 BelExpo 전시장
2024 벨라루스 미용뷰티 박람회 InterStyle 2024	2024.11.6.-11.9	민스크 Roofed Soccer Arena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장윤성	관장	민스크무역관	070-7001-0421	ysjang@kotra.or.kr

2024

벨라루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 979-11-402-0837-1 [95320]